

김 상 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국내 차(茶) 전문잡지의 내용분석

2005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문화산업학과 에절다도학 전공

김 지 은

논 문 개 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매스미디어를 통해 차인들에게 차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차 관련 정보의 종류나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차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다양한 차 정보원 중에서도 잡지문화와 관련하여 국내 차 전문잡지에 실린 차 관련 기사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차인들에게 어떤 내용의 차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지 그 경향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봄이 중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차 전문잡지에 게재된 차 관련 기사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을 계량적으로 조사하는 기법인 내용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차 전문잡지에 실린 차 관련 기사를 수집하여 빈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기사의 대상범위가 중복적인 경우에는 기사가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분류하였고, 분류는 기사의 내용에 의존했으므로 비슷한 제목의 기사라도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은 차 전문잡지 중 『다원(茶苑)』을 비롯하여 『설록차』, 『차인(茶人)』, 『다담(茶談)』, 『다로경권(茶爐經卷)』, 『다심(茶心)』, 『화백다론(和白茶論)』, 『차문화(茶文化)』,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 『하동 차문화』, 『다도(茶道)』, 『선문화』, 『차의 세계』, 『Tea & People』에 실린 기사였으며 각 잡지의 창간호부터 2004년 3월까지 발행된 전문잡지에 게재된 기사 총 3349건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창간된 차 전문잡지로는 『다원(茶苑)』, 『설록차』, 『차인(茶人)』, 『다담(茶談)』, 『다로경권(茶爐經卷)』, 『다심(茶心)』으로 총 6종에 이르고, 1990년대 발행된 차 전문잡지로는 『화백다론(和白茶論)』, 『차문화(茶文化)』,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 『하동 차문화』으로 총 4종에 이른다. 또한

2000년대 발간된 차 전문잡지로는 『다도(茶道)』, 『선문화(禪文化)』, 『차의 세계』, 『Tea & People』 으로 총 4종에 이른다.

둘째, 차 전문잡지에 게재된 주제유목별로 총 기사 3349건 중에,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는 1505건(44.94%)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와 교육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는 51건(1.52%)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셋째,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유목의 총 기사 1505건 중에, 다인(茶人)에 관한 기사가 331건(21.99%)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차의 역사에 관한 기사가 200건(13.29%)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넷째, 행다례에 관한 주제유목의 총 기사 444건 중에, 다실(茶室)에 관한 기사가 131건(29.50%)으로 가장 많았고, 다복(茶服)에 관한 기사가 54건(12.1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섯째, 차와 예술에 관한 주제유목의 총 기사 478건 중에, 차요리에 관한 기사가 239건(50.00%)으로 가장 많았고, 수공예에 관한 기사가 20건(4.18%)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여섯째, 차와 산업에 관한 주제유목의 총 기사 494건 중에, 찻집에 관한 기사가 151건(30.57%)으로 가장 많았고, 다회(茶會)에 관한 기사가 48건(9.72%)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곱째, 차와 교육에 관한 주제유목의 총 기사 51건 중에, 학교교육에 관한 기사가 40건(78.43%), 특수교육에 관한 기사가 11건(21.57%)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차와 과학에 관한 주제유목의 총 기사 377건 중에, 차의 효능에 관한 기사가 155건(41.11%)으로 가장 많았고, 차의 재배에 관한 기사가 69건(18.30%)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차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차에 관한 정확한 고증과 각종 저서의 발굴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의 차와의 접목을 통해 이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차 전문잡지의 내실화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차의 보급과 늘어난 차 관련

매체와 단행본 그리고 학술지들의 꾸준한 간행은 사람들의 차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전문적으로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보다 질적인 측면의 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차 전문잡지 발행을 둘러싼 어떤 내외적 환경 변수보다 우선, 전시대와 다른 사회, 문화적 조류 및 그에 따른 독자의 욕구 변화를 잘 파악하여, 그에 걸맞게 전문잡지의 변모를 일신시켜가야할 것이다. 또한, 단순한 실태나 설문조사의 보고, 비교나 평가없이 제공되는 각종 정보, 메시지 원의 근거가 부정확한 기사는 지양되어야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한 차문화를 영위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기사의 보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가 한정된 학술집단의 자기만족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차 전문잡지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차 전문잡지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차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제언한다. 차문화는 전통문화로서 생활문화, 예능문화, 축제문화를 아우르는 종합예술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이를 잘만 가꾸고 다듬으면 크게 발전할 소지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다가오는 문화의 세기에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창출해 내는 일이야말로 높은 문화를 향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따라서, 고급문화로서의 차문화를 익히고 생활화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민족적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의 한계점은 각 전문잡지에 게재된 기사를 총망라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차문화 전반에 나타난 경향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학회지, 연구지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차 전문잡지의 기사가 독자들에게 얼마나 잘 읽히며, 독자에게 미치는 기사의 효과나 영향은 분석하지 못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실증적인 조사를 병행하여 이를 같이 분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목 차

논 문 개 요

I. 서 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3
3. 연구방법	4
II. 차 전문잡지의 시기별 간행상황	7
1. 1980년대 창간된 차 전문잡지	7
2. 1990년대 창간된 차 전문잡지	18
3. 2000년대 창간된 차 전문잡지	21
III. 차 전문잡지의 유목별 내용분석	27
1. 주제유목의 분류	27
2. 주제유목별 내용분석	28
1)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	29
2) 행다례에 관한 주제	43
3) 차와 예술에 관한 주제	49
4) 차와 산업에 관한 주제	55
5) 차와 교육에 관한 주제	60
6) 차와 과학에 관한 주제	62
IV. 결론 및 제언	69

참 고 문 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I - 1> 1982년 전통다도의 종합적인 진흥시책	2
<표 II - 1> 1980년대 창간된 차 전문잡지	15
<표 II - 2> 1990년대 창간된 차 전문잡지	19
<표 II - 3> 2000년대 창간된 차 전문잡지	26
<표 III - 1> 차 관련 기사의 주제유목 및 하위영역	27
<표 III - 2> 주제유목 및 하위 영역별 빈도	28
<표 III - 3> 차문화사 관련 주제유목의 하위영역별 게재상황	30
<표 III - 4> 행다례 관련 주제유목의 하위 영역별 게재상황	43
<표 III - 5> 차와 예술 관련 주제유목의 하위 영역별 게재상황	50
<표 III - 6> 차와 산업 관련 주제유목의 하위영역별 게재상황	55
<표 III - 7> 차와 교육 관련 주제유목의 하위영역별 게재상황	60
<표 III - 8> 차와 과학 관련 주제유목의 하위영역별 게재상황	63

그림 목 차

<그림 II-1>	『茶苑』 1983년 창간호 표지	6·1
<그림 II-2>	『茶談』 1987년 창간호 표지	6·1
<그림 II-3>	『週刊茶報』 1981년 통권 1호 표지	6·1
<그림 II-4>	『雪綠茶』 1983년 창간호 표지	6·1
<그림 II-5>	『茶爐經卷』 의 표지	71
<그림 II-6>	『週刊茶報』 1993년 창간호 표지	7·1
<그림 II-7>	『茶人會報』 1983년 창간호 표지	7·1
<그림 II-8>	『茶人』 1997년 창간호 표지	7·1
<그림 II-9>	『和白茶論』 표지	02
<그림 II-10>	『茶文化』 1992년 표지	0·2
<그림 II-11>	『茶文化』 표지	02
<그림 II-12>	『茶研究會報』 표지	02
<그림 II-13>	『하동茶文化』 표지	02
<그림 II-14>	『茶道』 표지	62
<그림 II-15>	『禪文化』 표지	62
<그림 II-16>	『茶의 세계』 표지	26
<그림 II-17>	『Tea & People』 표지	26

I. 서론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정책은 1960년대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시작되어 초창기에는 고유 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보수유지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실제 본격적인 전통문화정책은 1970년대 ‘제 1, 2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을 통해 그 발판을 마련하였고, 1980년대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을 통해 전체적인 윤곽을 잡기 시작했다.¹⁾

1980년대 정부는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게임’을 앞두고 전통문화 진흥책의 일환으로 차를 권장하는 것은 물론 차 재배 농가에 대한 정책도 세웠다. 이에 따라 당시 정부는 고궁 관광업소 등에 차실(茶室)을 마련하여 외국인이 이용하도록 했고, 더불어 다원(茶園)을 경영하는 농가를 지원해 차엽의 생산가를 낮추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전통다도 보급의 일환으로 차 관련 전문잡지의 발간을 독려하기에 이른다.

또한, 차를 통해 전통문화를 부흥하려는 움직임은 1982년 7월 21일 문화공보부에서 발표한 전통다도의 종합적인 진흥시책을 통해 좀더 구체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1983년 차 관련 전문잡지인 ‘월간 다원(茶苑)’과 ‘설록차’가 출간되었다. 현재는 약 14종의 차 관련 전문잡지들이 발행되어 차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Goldsmith(1983)²⁾가 한 분야의 저널을 분석함으로써 그 분야의 진보와 학문

1) 서종대, “한국전통문화정책의 형성과 특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서울대 대학원, 1994.

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전문잡지는 해당 분야의 최근 관심사를 반영하고 그 분야의 발전과 미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차인들에게 어떠한 차 관련 정보가 차 전문잡지를 통해 제공되고 또한, 이러한 차 관련 정보의 내용과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차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차 전문잡지에 실린 차 관련 기사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차인들에게 어떤 내용의 차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지 그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차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경로의 하나인 차 전문잡지를 대상으로 어떠한 차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이루어졌는지 유목별로 분류하여 이를 토대로 최근까지의 차와 관련한 주요 문제와 관심사들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차 전문잡지가 담당해야할 요구와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차 전문잡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2) Goldsmith, E. B.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HERJ),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3), 1983, 207-213.

첫째,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의 시기별로 어떠한 차 전문잡지가 출판되었는가.

둘째, 차 전문잡지에서 다룬 차 관련 기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바람직한 차 정보 제공을 위한 차 전문잡지의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국내 차 연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차 전문잡지를 분석하는 것은 국내 차문화의 자취를 돌아보고 미래의 연구방향을 조망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작업이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차 전문잡지에 실린 차 관련 기사의 분석에 있어서 내용분석법³⁾을 적용하여, 차 관련 기사의 내용을 파악한 후 범주화하고 유사한 속성을 가진 기사들로 분류하여 주가 되는 개념을 대표하는 알맞은 표제를 선택하였으며, 각각의 범주 및 속성에 나타난 차 관련 기사의 빈도수를 계산하여 양적인 비중을 파악하려 하였다. 이는 주로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연구방법으로서 조사방법 중에서도 간접방법에 속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3) 내용분석은 우선 문서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상호 배타적이고 망라적인 일련의 카테고리들 구성한 후 연구되는 문서에서 각 카테고리가 관찰되는 빈도를 기록하는 구조화된 문서연구 기법으로 내용분석에 사용되는 자료는 신문, 잡지, 전기, 사설, 연설문, 편지, 공식문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프로그램 등으로부터 추출되며 특히 현대 사회에서의 매스컴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조사 방법으로 발달하게 되었다.(홍중선 외, 「조사방법과 통계자료분석」, 서울:박영사, 1996.) 내용분석의 문제점으로는 주제와 관련된 모든 필요한 문서를 수집할 수 없어 표본추출을 하여 일부만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 자체에 대한 문제, 조사자의 개별적 판단에 의하여 표본 추출하는 것과 관련된 자료 자체에 대한 문제, 조사자의 개별적 판단에 의하여 표본 추출하는 것과 관련된 카테고리의 신뢰도, 선택된 조사도구가 애당초 의도한 바를 측정하였는가 하는 타당도의 문제가 있는데 공식적인 타당도 검증의 과정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김경동 외, 「사회조사 연구방법론」, 서울:박영사, 1994.)

우선, 차 관련 전문잡지⁴⁾들 가운데 연구지나 학회지(學會誌) 성향이 강한 잡지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차 전문잡지⁵⁾만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분류된 차 전문잡지만을 대상으로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해 각 전문잡지에 게재된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기사들을 토대로 선정된 주제유목에 의하여 일부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수집된 차 관련 기사는 모두 3349건이었다. 동일 시기에 동일 차 전문잡지에서 유사한 내용의 기사가 두 번 이상 실린 경우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었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도의 기사로 취급하였다.

수집된 차 관련 기사를 그 내용에 따라서 수차례 분류 및 검토하여 비슷한 속성끼리 묶는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크게 차 관련 기사를 차에 대한 접근방향별로 분류하여 범주화 한 후, 다시 각각의 범주에서 유사한 속성을 가진 기사끼리 묶어 세분화하였다.

차 관련 기사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순위, 빈도를 명시하여 양적으로 표시하였으며, 각각의 세분화된 속성에 포함된 기사의 주된 내용을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차 관련 기사의 분석 내용을 근거로, 각각의 차 전문잡지에

4) 세계적인 언론학자이자 미국의 시라큐스대학교에서 신문학부를 맡고 있던 롤랜드 윌스레이 교수는 '잡지란 일반 독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기사, 소설, 시, 사진 등 잡다한 내용이나 또는 특정한 취미, 관심이나 직업을 가진 집단 및 특정한 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한 특수내용을 포함한 정기간행물'이라고 정의했다. (안춘근, 「잡지출판론」, 서울:범우사, 1988.)

5) 전문잡지란 어떤 특정한 분야를 집중 취재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의 특성을 다음 다섯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동인지(同人誌)적인 요소(동일한 목적을 지니는 사람들이 함께 발행하는 잡지) 둘째, 게시판(揭示板)적인 요소(공동 관심사를 집약한 게시판과도 같이 서로의 관심, 서로의 흥미 등을 때를 놓치지 않고 알려주는 기능) 셋째, 연구(研究)보고서(報告書)적인 요소(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을 절충한 연구보고서와도 같은 내용) 넷째, 지도(指導)계몽(啓蒙)적인 요소(시대를 앞서가는 여러 가지 지식 그리고 계몽을 담당하는 기능) 다섯째, 자료(資料)보존(保存)적인 요소(연구 보존할 가치가 있어야 되는 바르고 알찬 내용이 적절하게 담겨있는 잡지) (안춘근, 앞의 책, pp.74-77.)

실린 차 관련 정보의 경향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차 전문잡지에 실린 차 관련 기사의 내용분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1인이 자료수집 및 내용 분류 작업을 시행하였으므로 주관적인 해석이 내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연구자가 본 연구를 통해 연구하고자한 기사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앞서 선정한 유목에 관해서만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그밖에 차 관련 기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문잡지 전체의 차 관련 기사 분석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Ⅱ. 차 전문잡지의 시기별 간행상황

1. 1980년대 창간된 차 전문잡지

1980년대에 창간된 차 전문잡지에는 『다원(茶苑)』, 『설록차』, 『차인(茶人)』, 『다담(茶談)』, 『다로경권(茶爐經卷)』, 『다심(茶心)』 등이 있다.

1) 『다원(茶苑)』

1980년대 우리 고유차를 장려하는 정부의 방침과 맞물려 『다원(茶苑)』은 1983년 2월 김봉호에 의해 월간의 형태로 발행되었다. 그러나 1983년 9월호, 10월호가 미발행 되었으며, 결국 이듬해 1984년 3월 통권 11권으로 폐간되었다.

『다원(茶苑)』의 발행 배경은 창간 당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정부의 전통문화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모색되었다. 차의 활성화를 통한 전통문화의 복원이라는 『다원(茶苑)』의 발행 목적을 김봉호⁶⁾의 권두언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한국차인회회장을 역임한 송지영의 창간사 「우리 茶人들의 伴侶」⁷⁾를 살펴보면, 『다원(茶苑)』을 통해 차에 관한 모든 것을 새롭게 고구(考究)하여 하나의 의범(儀範)을 정립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판형도 크고 분량도 120페이지에 달했던 『다원(茶苑)』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차의 역사, 차의 효능, 행다법에서부터 한국의 풍류, 한국의 전통음

6) 월간 『다원(茶苑)』 창간호. pp.28-29.

7) 월간 『다원(茶苑)』 창간호. p.31.

식과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오래된 전문잡지여서 문어체적인 표현이 많고, 편집이나 종이의 질은 다소 떨어지지만 내용면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느 차 전문잡지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무엇보다도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매우 친숙하게 쓰여져 있다. 또한 다시(茶詩)와 다서(茶書) 뿐만 아니라 차의 유적지에 대한 기행문도 실렸다. 더불어 일반 독자들의 차를 주제로 한 시와 수필 부문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2) 『설록차』

1981년 6월 15일 통권 1호로 (주)태평양화학 식품사업부에서 ‘주간 다보’라는 제호로 처음 발행된 『설록차』는 1982년 11월 29일 통권 66호까지 매주 발행되었다. 『설록차』라는 제호로서의 창간은 1983년 2월에 이루어졌고, 1995년 1월까지 월간 잡지 형태로 간행되었으며 그 해 2월에는 미발행 되었다. 그 후 1995년 3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권 199호로 격월간지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주간 다보의 발행 목적은 사원들을 대상으로 녹차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차의 역사, 차의 종류, 다구와 다실 등 차에 관한 개괄적인 지식에서부터 수석이나 분재와 같은 취미생활을 차와 연계하여 수록하고 있다. 또한 차 마시는 방법과 다시(茶詩)와 차인(茶人)에 관한 내용도 단편으로 종종 실렸다. 특히 설록차는 각계 전문가의 글을 실어 심도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 읽을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어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하고 차문화 전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밖에 ‘민속과 차’라는 제목으로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음다문화와 관련된 풍속들에 대한 글이 다수 게재되었다.

1981년 6월 15일에 처음 발행된 통권 1호에 실린 「주간다보 창간에 즈음하

여」라는 창간사를 살펴보면, 당시 차에 대한 인식과 녹차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함께, 전통문화 회복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음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⁸⁾

예로부터 우리조상들은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인품을 기르기 위하여 차를 마셨으며 이를 통하여 슬기로운 지혜, 온건한 마음씨, 굳건한 정신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변화와 더불어 외세와 외래 문물이 급속히 도래되었고 커피라는 서양차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고유한 다도가 점차 사라지게 된 것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 다도문화의 재현이라는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 설록차를 위하여 차에 새로운 지식을 전해주고 앞으로의 길을 인도해 줄 뜻을 모아 「주간다보」를 엮어보려 합니다.⁹⁾

또한, 1983년 2월에 창간된 『설록차』의 통권 1호에 실린 「傳統茶道文化再現의 첫걸음」¹⁰⁾이라는 창간사에는 「太平洋茶藝館」개설 및 「다예총서 I, II」출간과 더불어 ‘차문화 유산의 중요성’, ‘차와 국민건강’, ‘차와 정신문화’라는 세가지 이념 제시를 통해 전통다도문화의 구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

3) 『다담(茶談)』

월간 『다원(茶苑)』의 편집장을 지낸 이기운 선생이 새로이 발행과 편집을

8) 장윤희, ‘1980년대 이후 녹차산업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2004.

9) 서향원, ‘주간다보창간에 즈음하여’, 『주간 다보』, 1981년 6월 15일 창간호. p.1.

10) 『설록차』, 1983년 2월 창간호, p.4. (부록참조)

말은 『다담(茶談)』은 1987년 4월에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1994년 말까지 작은 판형의 월간 형태로 발행되었으며 1995년부터 계간지의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판형도 크고 160페이지의 많은 양의 차 정보와 글을 싣고 있다. 1988년 4월, 6월, 7월호가 미발행된 것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통권 129호(2004년 봄호)에 이르게 된다.

『다담(茶談)』의 창간사¹¹⁾를 살펴보면, 통권 11호로 막을 내린 『다원(茶苑)』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당시의 차생활 운동에 대한 냉철한 비판을 통해 앞으로의 차문화가 나아가할 방향을 『다담(茶談)』을 통해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차의 효능, 세계의 명차, 차의 역사, 차산업 등의 연구자료에서부터 다양한 차모임의 소식을 통한 교류까지 담고 있다. 또한 차를 주제로 한 수필공모를 통해 일반 독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홍차와 커피에 관한 내용도 단편으로 종종 실렸다. 이밖에 『다담(茶談)』은 한국다도협회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차와 관련된 일반인, 예술인, 전문가등 다양한 분야의 차인들의 글이 실려 있다. 옛스러운 서체와 전통적인 문양을 가미한 디자인이 인상적인 전문잡지이다.

4) 『다로경권(茶爐經卷)』

1987년 8월 해인승가대학 ‘다경원’¹²⁾의 스님들에 의해 월간의 형태로 창간호가 발행된 『다로경권(茶爐經卷)』은 통권 107호(불기 2542년 1월)까지는 월간의 형태를 유지해 오다가 통권 108호(불기 2542년 봄호), 109호(불기 2542년 여름호), 110호(불기 2542년 가을호)는 계간의 형태로 변경되었다. 1999년부터

11) 이기훈, ‘다담 창간은 필연의 소산’, 월간 『다담(茶談)』, 창간호, pp.16-19.

12) 차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학승들의 모임으로 2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님들의 차 모임이다.

2002년 8월까지 약 4년에 걸친 휴간기를 거쳐 통권 111호(불기 2546년 9,10월)를 시작으로 통권 115호(불기 2547년 7,8월)까지 격월지의 형태로 발행되었다. 그 후 통권 116호(불기 2548년 봄호)부터 계간의 형태로 재변경 되었다.

또한, 불기 2535년(1991년) 8월 『다로경권(茶爐經卷)』 합본집이 발간되었다. 합본 제1권 서문¹³⁾에 보면 『다로경권(茶爐經卷)』은 차를 통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킴과 동시에 우리 고유의 정신과 얼을 살려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염원코자 하는 발간목적이 나타나 있다.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초창기에는 다서(茶書) 강독, 독자들의 차와 관련된 문학작품들이 주를 이루다가 차의 성분과 효능, 다기의 종류에 관한 내용들도 다수 게재되었다. 특이할 만한 점은 『다로경권(茶爐經卷)』은 승려들에 의해 발행되었기 때문에 여타 전문잡지들보다 불교와 차를 연계시켜 다루고 있는 기사들이 많다.

5) 『차인(茶人)』

『차인회지(茶人會誌)』는 현재 『차인(茶人)』지의 모체로서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¹⁴⁾에서 1983년 7월 신문의 형태로 간행한 것이다. 신문형태의 『차인회지』는 통권 41호(1996년 8월)까지 월간의 형태로 발행되었으며, 약 6개월의 휴간기를 거쳐 1997년 3월 이를 복간하여 잡지 형태의 『차인(茶人)』을 간행하였으며, 현재는 격월간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현재는 통권 83호(2004년 3,4월)에 이르고 있다.

작은 판형이 가진 장점을 두루 살려 편집이나 내용면에서 모두 짜임새있게

13) 『다로경권(茶爐經卷)』 합본 제 1권.

14)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federation of korean tea masters society)는 1979년 1월 20일 서울에서 전통문화 발전에 뜻을 둔 전국차인들이 모여 처음에는 한국차인회란 명칭으로 발족되었다. 설립의 목적은 국내 차인들의 모임인 단위차회를 관리, 육성, 지원하며 국민차생활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국민정신을 함양하는데 있다.

구성된 『차인(茶人)』의 발행 목적은 차문화 발전과 더불어 차의 대중화를 통한 차산업의 확대에 있다. 1997년 3월 복간본 이전에는 주로 각 지회의 활동 및 소식 위주의 내용을 다루었으며, 복간본 이후에는 주로 다인(茶人)과 다시(茶詩)에 대한 기사가 거의 빠짐없이 매회 게재되었으며 특히 차인(茶人)에 대한 기사는 근대의 차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또한 차요리, 다화(茶花), 다악(茶樂)과 같이 차와 기존의 다양한 분야들을 연결지어 수록하고 있다. 또한 茶書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한국의 차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새로운 시도를 꾀하기도 했다. 이밖에 생활 속에서 차를 즐기는 차인들의 따뜻한 이야기들이 에세이처럼 실려 있어 편하게 읽을 수 있다.

1997년 3월 복간호에 실린 「茶文化의 위상을 높이는 茶人の 대변지」라는 발간사를 살펴보면, 당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차문화에 대한 관심의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차문화의 높아진 위상을 보다 육성화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茶人’誌는 88년까지 발간되었는데

97년부터 이를 복간해서 발간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茶文化도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5월에는 國際茶文化 서울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림으로써

우리 茶文化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금년 5월에는 우리나라 茶文化의 中興祖이신 草衣 張意恂 禪師가 茶文化를

중흥시킨 文化人物로서 정부로부터 지정됨으로써

茶文化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茶人’誌를 내는 뜻이 높고도 깊다고 생각합니다.¹⁵⁾

15) 박권흠, ‘차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차인의 대변지’, 『차인(茶人)』, 1997년 3월 복간호. pp.3.

6) 『다심(茶心)』

1988년 봄호를 필두로 부산의 차인모임인 다심문화연구회에서 계간의 형태로 발간된 『다심(茶心)』은 1994년 3,4월호부터 격월지의 형태로 변경됨과 동시에 통권 24호로 폐간되었다.

1988년 봄호부터 1990년 봄호는 다심문화연구회에서 출간했으며 1990년 여름호부터 1992년 겨울호는 동다문화연구소에서 출판을 맡았다. 다음해 1993년 봄호부터 1994년 3,4월호까지는 다심사에서 출간했다. 다심 창간 3주년 기념호인 1991년 봄호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무크지¹⁶⁾로 이후에는 전문잡지로 잡지의 성격이 구분되었다.

『다심(茶心)』의 발행목적은 차 애호가들을 위해 차와 관련된 여러 지식들을 공유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다시와 다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차와 건강, 다기, 제다에 대해서도 종종 실렸다. 또한 차 유적지에 대한 기행문 형식의 글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밖에 세시풍속, 판소리와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을 통해 전통문화의 부흥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88년 창간호에 실린 「다심문화연구회 사업개요¹⁷⁾」라는 글을 통해 『다심(茶心)』 발간을 비롯해서 다양한 차문화 전시회를 통해 茶文化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6) 부정기 간행물이란 뜻의 무크(mook)는 잡지(magazine)와 서적(book)의 합성어이다. 문학지, 동호인지, 등에서 주로 창간하곤 하는데, 미국에서는 매거북(magabook), 부커진(bookazin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책과 정기간행물인 잡지의 중간쯤 되는 성격 때문이다. 무크지로 출판하는 분야는 원고의 수급이 쉽지않은 문학의 동호인들 잡지가 많고 취미 요리 패션 학술지 등 종류도 다양하고 수준 또한 상당하다. 무엇보다 무크지는 달리 부정기적으로 간행된다는 점이 기존 잡지와 다른 점이다.(박기현, 『한국의 잡지출판』, 서울:늘푸른소나무, 2003.

17) 『다심(茶心)』 1988년 창간호. p.71.

「다심문화연구회 사업개요」

- ① 우리 전통차 생활의 향기로운 정신을 계승 발전 시키기 위한 연구와 홍보
- ② 茶를 사랑하고 淸淨한 茶精神과 溫和하고 儉德한 茶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모든 차인들의 벗이 될 『다심(茶心)』 지(誌)의 발간 육성
- ③ 茶文化의 부흥과 茶生活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차문화강연회, 다도교실, 茶文化 전시회(茶器, 茶書, 茶畫, 茶詩, 茶花, 茶石), 茶心賞 등의 행사를 운영 개최
- ④ 기타 茶마음, 茶精神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

이상에서 살펴본 1980년대 창간된 차 전문잡지를 표로 정리하면 <표Ⅱ- 1> 와 같으며 각각의 차 전문잡지의 표지 모습은 <그림Ⅱ-1> ~ <그림Ⅱ-8>이다.

<표Ⅱ- 1> 1980년대 창간된 차 전문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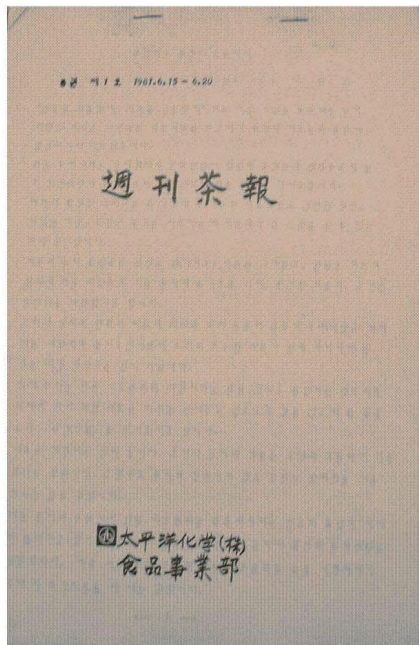
제 호	발행인/기관	창간호	간 별	통 권 (2004년 3월 현재)
다원(茶苑)	김봉호	1983년 2월	월간	통권 11호
설록차	(주)태평양	1983년 2월	격월간	통권 199호
차인(茶人)	차인연합회	1983년 7월	격월간	통권 83호
다담(茶談)	이기윤/다담사	1987년 4월	계간	통권 129호
다로경권(茶爐經卷)	해인승가대학 다경원	1987년 8월	계간	통권 116호
다심(茶心)	다심문화연구회	1988년 봄	계간	통권 2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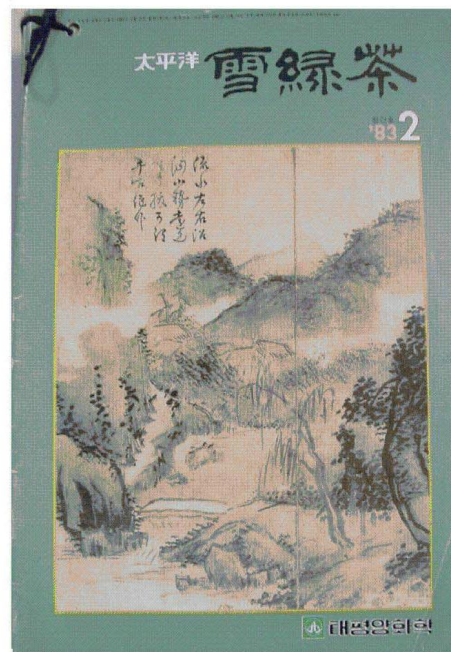
<그림 II- 1> 『茶苑』1983년 창간호 표지



<그림 II- 2> 『茶談』1987년 창간호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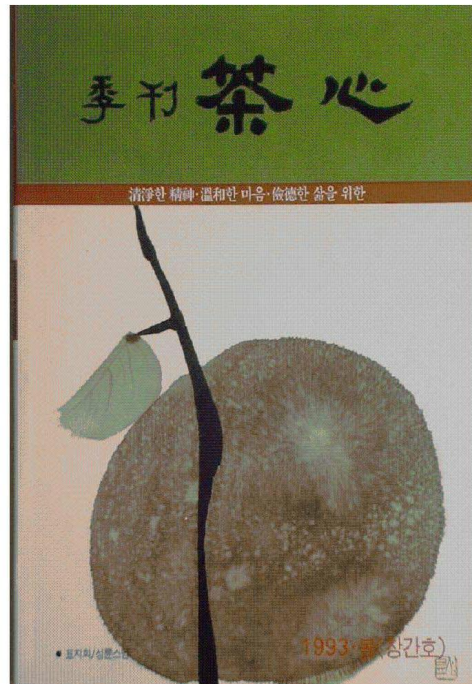
<그림 II- 3> 『週刊茶報』1981년 통권 1호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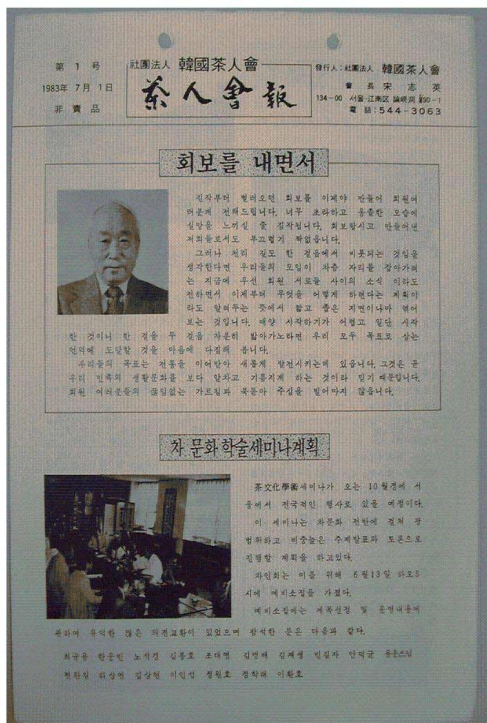
<그림 II- 4> 『雪綠茶』1983년 창간호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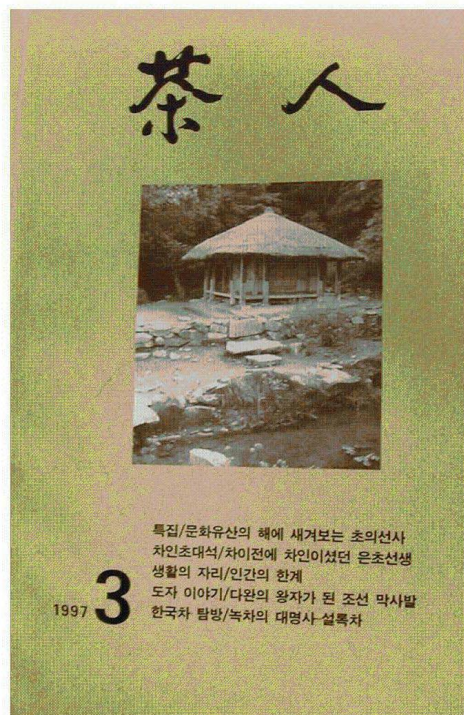
<그림 II - 5> 『茶爐經卷』의 표지



<그림 II - 6> 『주간다보』 1993년 창간호 표지



<그림 II - 7> 『茶人會報』 1983년 창간호 표지



<그림 II - 8> 『茶人』 1997년 창간호 표지

2. 1990년대 창간된 차 전문잡지

1990년대 창간된 차 전문잡지로는 『화백다론(和白茶論)』, 『차문화(茶文化)』, 『차연구회보』, 『하동 차문화』 등이 있다.

1) 『화백다론(和白茶論)』

진주(晋州)의 차인들의 모임인 강우차회(江右茶會)에 의해 『화백다론(和白茶論)』은 1992년 발간되었다. 강우차회는 1992년 차를 좋아하는 진주사람, 열한 사람의 동학(同學)이 모여 차회활동을 시작한 모임이다. 한 달에 두 번의 모임을 통해 차와 관련된 주제발표를 하고 사계절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네차례 차회 활동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12월이 되면 주제발표내용을 다듬고 활동 사항을 정리하여 회지 ‘화백다론’에 실는다. 초기 1호, 2호는 차에 관한 담론의 구조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여 논(論)이라는 말을 붙이지 못하고 ‘화백차담’이라 하였다.

회지에 붙은 ‘화백(和白)’이라는 말은 장차 수백년 후에도 동학의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귀하게 받아들이고 모자라는 점은 서로 토의해서 보충해 갈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것은 밖으로는 신라시대의 만장일치제인 화백제도를 본따고, 안으로는 여러 종파를 화합시키려는 원효의 화쟁(和諍)사상도 함축하고 있다. 현재 제12호(2003년 12월)까지 연간의 형태로 발행된 『화백다론(和白茶論)』에서는 차의 역사, 차인(茶人), 차도(茶道)와 같은 차생활의 이론에서부터 음다(飲茶), 다구(茶具)와 같은 차생활의 실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2) 『차연구회보』

전남 보성 차시험장 차연구회에 의해 『차연구회보』는 1997년 5월 처음으로

발행되었다. 차연구회는 차에 관한 모든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특히 차의 재배, 가공, 유통 분야의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차연구회보』는 제 8호(2000년 12월)까지는 1년에 비정기적으로 두 번 발행되었으나 제 9호(2001년 8월)부터 현재 제 12호(2004년 2월)까지 연 1회 발행되고 있다.

3) 『차문화(茶文化)』

사단법인 차문화협회에 의해 『차문화(茶文化)』는 1992년 창간되었다. 사단법인 차문화협회는 1979년 한국차인회로서 창립을 시작으로 한국 전통 차문화를 연구 보급함으로써 올바른 차문화 정립 및 국민의 정서 순화와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그 목표로 삼고 있는 단체이다. 1992년 창간호부터 1998까지는 1년에 2회 비정기적으로 간행되었으며, 2000년 7,8월호와 9,10월호 그리고 2001년 9,10월호가 미발행된 것을 제외하면 1999년 3,4월호부터 현재까지 격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성격상 협회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싣고 있지만 차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도움이 될만한 외부 인사들의 글들이 많이 실려 있다.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한국의 차 유적지 탐방을 통한 차의 역사 고찰과 차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게재하였다. 또한 (사)한국차문화협회의 행사 및 활동과 더불어 지회 및 지부의 소식을 통해 전국의 회원들간의 교류의 장이자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하동 차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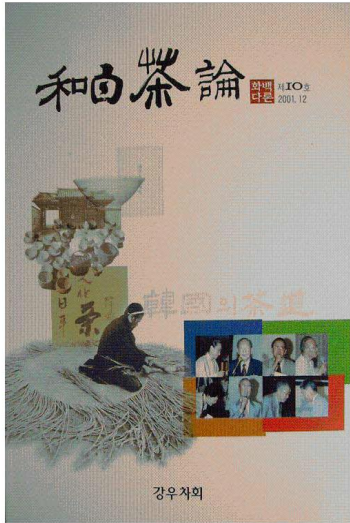
하동 차문화회 강기주 시인(詩人)에 의해 『하동 차문화』가 1999년 10월 발행되었다. 하동 차문화회는 차문화의 대중화와 더불어 우리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관심을 두고 있는 단체이다. 현재 통권 13호(2004년 봄호)까지 계간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차에 관해 다루고 있는 부분은 차의 종류, 차요리, 차

의 기능과 효능 등에 그쳤으나, 차를 소재로 한 시, 수필 부분의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문학지(文學誌)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리산 이야기, 지리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기사와 하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茶) 광고가 종종 실렸다. 또한 하동 차문화 소식과 축제에 대한 소식을 통해 화개동 차의 발전과 문화산업에 반석이 되고자한 창간 목적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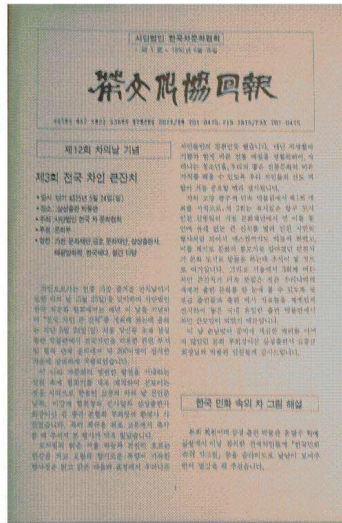
이상에서 1990년대 창간된 차 전문잡지를 표로 제시하면 <표Ⅱ- 2>와 같으며 각각의 차 전문잡지의 표지 모습은 <그림Ⅱ- 9> ~ <그림Ⅱ- 14> 와 같다.

<표Ⅱ- 2> 1990년대 창간된 차 전문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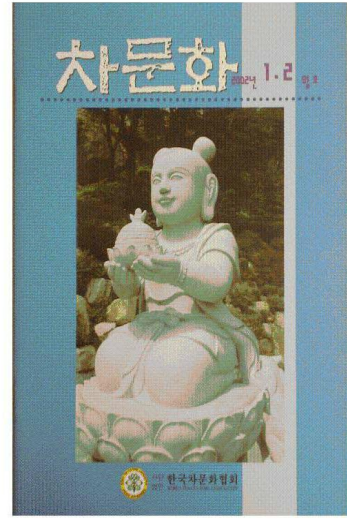
제 호	발행인/기관	창간호	간 별	통 권
화백다론(和白茶論)	강우차회	1992년	연간	제12호
차문화	(사)한국차문화협회	1992년	격월간	통권 73호
차연구회보	전남보성차시험장 차연구회	1997년 5월	비정기적 (연 2회)	통권 12호
하동 차문화	강기주	1999년 10월	계간	통권 1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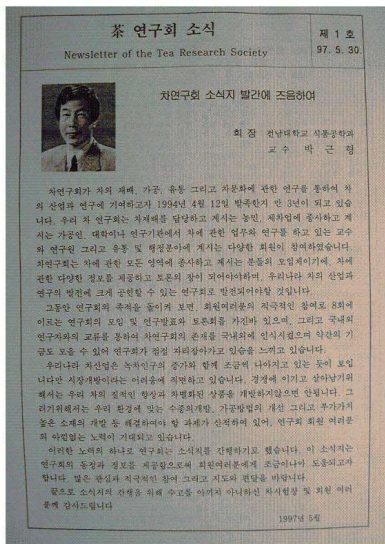
<그림 II - 9> 『和白茶論』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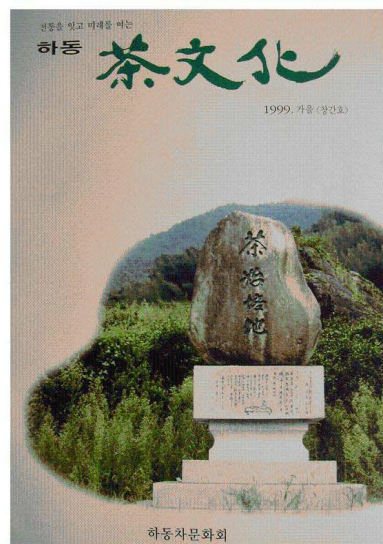
<그림 II - 10> 『茶文化』 1992년 표지



<그림 II - 11> 『茶文化』 표지



<그림 II - 12> 『茶研究會報』 표지



<그림 II - 13> 『하동 茶文化』 표지

3. 2000년대 창간된 차 전문잡지

2000년대 창간된 차 전문잡지로는 『다도(茶道)』, 『선문화(禪文化)』, 『차의 세계』, 『Tea & People』 등이 있다.

1) 『다도(茶道)』

전국적인 차문화 부흥의 취지로 『다도(茶道)』 강범선에 의해 2000년 5월 발행되었다. 판형이 크고 전체의 2/3 이상이 컬러로 처리되어 이미지들을 강조하고 있는 『다도(茶道)』는 차 전문잡지로서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설록차』의 뒤를 이어 본격적인 차 전문잡지 시대를 연 잡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통권 47호(2004년 3월)로 월간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다도(茶道)』의 발행목적은 편협하지 않은 시각에서 차문화 인구의 저변 확대와 정신문화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차문화사, 다화(茶花), 차요리, 세계명차 등이 있으며, 세시풍속과 박물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특히 생활예절이라는 제목으로 찻자리에서의 예절 뿐만 아니라 차와 예절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차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을 위한 ‘초심자 길라잡이’라는 기사물을 통해 보다 차를 대중화하는데 힘썼다. 이밖에 외국문화 소개, 한국의 꽃, 한국의 신, 음식이야기 등 차와 관련된 내용 이상으로 문화와 전통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선문화(禪文化)』

불교춘추사에서 『선문화(禪文化)』는 2000년 8월에 창간한 잡지이다. 불교

춘추사는 불교영상매체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시절 불교영상회보사를 설립하여 500여편에 이르는 영상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불교영상회보』(통권21호), 『불교춘추』(통권19호), 『선문화』(2000년 창간), 『차의 세계』(2002년 창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넓혀왔다.

특히 ‘선문화’는 선차(禪茶)에 대해 보다 전문성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통권 43호(2004년 3월)로 월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선문화(禪文化)』의 창간호에 실린 ‘정신문화 혁명 선문화가 앞장선다’라는 창간사를 살펴보면, 중국의 선(禪)과 한국의 선(禪)을 통한 선차(禪茶)위주의 기사를 통해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정신을 발현하고자 한 발행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선문화(禪文化)』는 선을 통해 인류문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가 주된 화두입니다. 본지는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독자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문화(禪文化)』를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 중 략 -

월간 『선문화(禪文化)』는 과거의 고적들만 들추는 데 머무르지 않고, 중국 선과 한국 선 수행의 살아있는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심층 취재하는 데 역점을 둬으로써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선적 지식과 교양을 고루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집중기획으로 매 호마다 특집을 소개하고 생활선과 차, 그리고 선문화의 각 장르별로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선문화 속에서 인류의 밝은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데 선문화가 그 주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¹⁸⁾

18) 최석환, ‘정신문화 혁명 선문화가 앞장선다’, 『선문화(禪文化)』, 2000년 8월 창간호, p.11.

또한, 『선문화(禪文化)』는 선(禪)과 차(茶)에 대한 기사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중국 선차의 원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중국 선차에 대한 기사를 매회 연재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8월호부터는 차(茶)에 관한 기사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어 알 수 있다.

3) 『차의 세계』

『선문화(禪文化)』와 같은 불교춘추사에서 출간된 『차의 세계』는 2002년 1월에 창간되어 현재 통권 27호(2004년 3월)로 한달에 한번씩 발행되는 월간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차의 세계』의 창간호에 실린 「우리 차문화 정신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라는 창간사를 살펴보면, 한·중 차문화 교류 확대와 더불어 선다일미(禪茶一味), 다선일미(茶禪一味)의 한국 차정신을 공고히 하는데 발행 목적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 차문화는 70년부터 일기 시작하여 100만 명에 육박하는 차동호인이 생겨날 정도로 기층문화로 성장 발전하였고 이는 정신문화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의 세계는 독자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차가 정신문화로 거듭 태동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지난 해 10월 19일 깎다거 공안의 현장 백림사에 조주선사 선다기념비가 건립되고 한·중 차맥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비명에 “한·중의 불교는 한뿌리이니 예부터 한 집안이며 범맥 또한 전함이로구나”라고 밝힌 바와 같이 『차의 세계』를 통해 한중 차문화의 교류를 활발히 이어나갈 것이며 선차의 맑고 투명한 정신을 가득 담아 선다일미(禪茶一味),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한국 차의 정신을 동아시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¹⁹⁾

『차의 세계』는 차(茶)와 선(禪), 차문화(茶文化), 차와 인물 그리고 기획연재 이렇게 네부분으로 기사를 분류하고 있다. 먼저 차와 선에는 선차시(禪茶詩)에 대해 게재하고 있으며, 차문화에는 동아시아 전반의 차문화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차와 인물에서는 역대 제왕들의 차 이야기, 역사 속의 차인, 도예가에서부터 현대의 차 애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기획연재를 통해서도 보다 ‘차(茶)’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와 더불어 당시의 쟁점화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었다.

4) 『Tea & People』

신희호에 의해 『Tea & People』은 2003년 1월에 처음으로 발행되었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차 전문잡지로서 월간의 형태로 현재까지 통권 14호(2004년 3월)에 이르고 있다. 『Tea & People』의 발행 목적은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향유해 온 차문화(茶文化)의 저변확대를 위해 창간되었다.

『Tea & People』에서 주로 다룬 내용은 차요리, 꽃차, 등잔 등과 같이 차(茶)와 여러 문화를 접목하여 구성하고 있다. 또한 일반 차 애호가들의 소개를 통해 차에 관한 참여를 적극 권장하였으며, ‘茶文化 入門’이라는 기사 제목으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차문화사(茶文化史)를 다루었다. 또한 ‘중국의 명차’에 대한 연재를 통해 다양한 중국차종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창간된 차 전문잡지를 표로 정리하면 <표II- 3> 와 같으며, 각각의 차 전문잡지의 표지는 <그림II- 14> ~ <그림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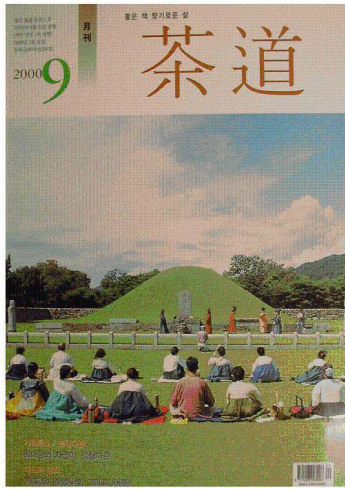
19) 최석환, ‘우리 차문화 정신 동아시아 중심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차의 세계』 창간호, p.17.

17>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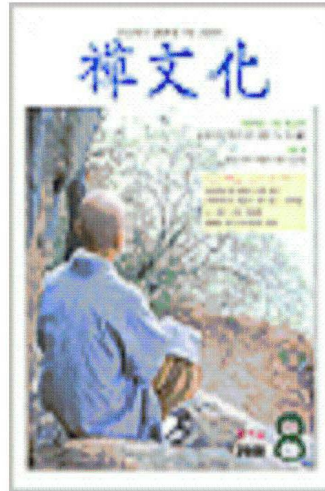
<표Ⅱ- 3> 2000년대 창간된 차 전문잡지

제 호	발행인/기관	창간호	간 별	동 권 (2004년 3월 현재)
다도(茶道)	강법선	2000년 5월	월간	47호
선문화(禪文化)	불교춘추사	2000년 8월	월간	43호
차의 세계	불교춘추사	2002년 1월	월간	27호
Tea & People	신희호	2003년 1월	월간	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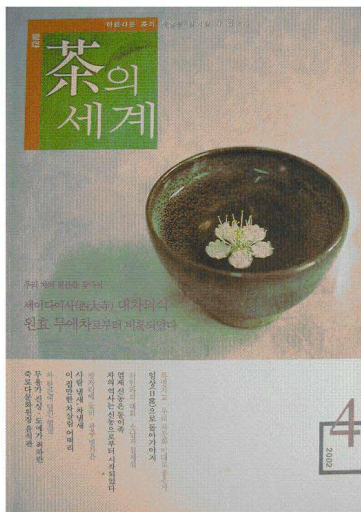
지금까지 발행된 차 전문잡지들은 일반 차인들을 위해 발간된 월간, 계간 형태와 기업이나 협회 등에서 발행되는 기관지(機關誌)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차 전문잡지는 기관지 형태의 잡지에 비해 시기도 짧으며 내용이나 구성면에서도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기관지의 형태로 만들어진 차 전문잡지들이 내용이나 구성에서 전문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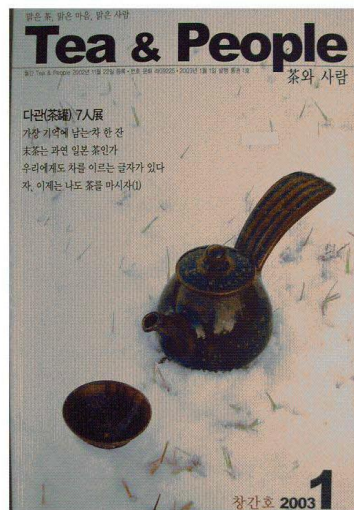
<그림 II- 14> 『茶道』 표지



<그림 II- 15> 『禪文化』 표지



<그림 II- 16> 『茶의 세계』 표지



<그림 II- 17> 『Tea & People』 표지

Ⅲ. 차 전문잡지의 유목별 내용분석

1. 주제유목의 분류

본 연구에서는 최배영, 최진영(2001)과 김혜숙(2002)의 분류기준을 참고로 하여 먼저 주제유목을 설정하였으나, 차 전문잡지들에 게재된 기사제목과 내용에 의거하여 일부 재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분이 모호한 영역은 삭제하거나 통합하고,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유목과 같이 기사의 수가 많은 영역은 유목을 세분하였으며, 두 가지 유목 이상에 해당되는 기사는 내용상 보다 강조된 영역에 배정하였다. 기사의 분류기준인 주제유목과 그 하위유목은 다음과 같다.

<표Ⅲ- 1> 차 관련 기사의 주제유목 및 하위영역

주제유목	하 위 영 역
차문화사	한국차문화의 역사/외국차문화의 역사/다서(茶書)/다시(茶詩)/차인(茶人)/차유적지
행다례	물/다구(茶具)/다복(茶服)/다실(茶室)/다례법
차와 예술	다화(茶畫)/다화(茶花)/다악(茶樂)/수공예/차요리
차와 산업	다기관매점/차집/제다업/행사, 전시 및 축제/다회(茶會)
차와 교육	학교교육/특수교육
차와 과학	차의 재배/차의 성분/차의 효능/차의 활용

2. 주제유목별 내용분석

주제유목과 하위영역으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아래의 <표Ⅲ-2>와 같다.

<표Ⅲ- 2> 주제유목 및 하위 영역별 빈도

주제유목	소계(%)*	하위영역	빈도(%)**
차문화사	1505(44.94)	한국차문화의 역사	200(13.29)
		외국차문화의 역사	239(15.88)
		다서(茶書)	270(17.94)
		다시(茶詩)	254(16.88)
		차인(茶人)	331(21.99)
		차 유적지	211(14.02)
행다례	444(13.26)	찾물	66(14.86)
		다구(茶具)	102(22.97)
		다복(茶服)	54(12.16)
		다실(茶室)	131(29.50)
		다례법	91(20.50)
차와 예술	478(14.27)	다화(茶畵)	67(14.02)
		다화(茶花)	110(23.01)
		다악(茶樂)	42(8.79)
		수공예	20(4.18)
		차요리	239(50.00)
차와 산업	494(14.75)	다기판매점	66(13.36)
		찾집	151(30.57)
		제다업	90(18.22)
		행사, 전시 및 축제	139(28.14)
		다회(茶會)	48(9.72)
차와 교육	51(1.52)	학교교육	40(78.43)
		특수교육	11(21.57)
차와 과학	377(11.26)	차의 재배	69(18.30)
		차의 성분	80(21.22)
		차의 효능	155(41.11)
		차의 활용	73(19.36)
총 계	3349(100)		3349(100)

* 전체에서 각 주제유목이 차지하는 비율

** 각 주제유목별 총 기사 중 하위영역이 차지하는 비율

주제유목별로 총 기사 3349건 중에,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는 1505건(44.94%)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와 산업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는 494건(14.75%), 차와 예술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는 478건(14.27%), 행다례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는 444건(13.26%), 차와 과학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는 377건(11.26%) 그리고 차와 교육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는 51건(1.52%)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1)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유목의 총 기사 1505건 중에, 차인(茶人)에 관한 기사가 331건(21.99%)으로 가장 많았고, 다서(茶書)에 관한 기사가 270건(17.94%), 다시(茶詩)에 관한 기사가 254건(16.88%), 외국차의 역사에 관한 기사가 239건(15.88%), 차유적지에 관한 기사가 211건(14.02%), 한국차의 역사에 관한 기사가 200건(13.29%)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차문화사 관련 주제유목에 따른 전문잡지들의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다.

<표Ⅲ- 3> 차문화사 관련 주제유목의 하위영역별 게재상황

하위영역		잡지명		다	설	차	다	다	다	화	차	차	하	다	선	차	차
		원	록	인	담	로	심	백	문	연	동	도	문	의	와		
		차	차	인	담	로	심	백	문	연	동	도	문	의	와	사	사
		원	록	인	담	로	심	백	문	연	동	도	문	의	와	사	사
		차	차	인	담	로	심	백	문	연	동	도	문	의	와	사	사
한국 차문화의 역사	삼국시대	○	○	○	○	○			○		○	○	○	○	○	○	○
	고려시대	○	○	○	○	○			○		○	○				○	○
	조선시대	○	○	○	○	○	○		○		○	○				○	○
외국 차문화의 역사	동양	○	○	○	○	○	○	○	○		○	○	○	○	○	○	○
	서양		○	○	○		○				○	○				○	○
다서 (茶書)	동다송	○	○	○	○	○					○	○				○	○
	다신전	○	○	○	○	○											
	다부		○	○		○			○		○					○	
	다경	○	○		○	○		○			○	○	○	○	○	○	○
	꼭다양생기		○	○		○											
다시 (茶詩)	신라시대						○										
	고려시대	○	○		○		○	○							○	○	
	조선시대	○	○	○	○	○			○								
	중국의 다시			○	○										○		
다인 (茶人)	신라시대	○	○		○	○					○					○	
	고려시대	○	○		○	○									○		
	조선시대	○	○		○	○			○		○	○				○	
	근·현대		○	○	○		○		○		○	○	○	○	○	○	○
	여류다인				○		○										
차유적지	국내	○	○	○	○	○	○		○		○	○				○	○
	국외	○	○	○	○		○		○						○	○	○

우선, 『다원(茶苑)』의 한국 차문화의 역사에 관한 기사는 ‘韓國의 茶文化史’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차나무가 들어오기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고찰부터 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차문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외국 차문화의 역사에 관한 기사는 ‘中國의 茶文化史’, ‘日本의 茶文化史’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다서(茶書)의 경우는 다경(茶經)을 비롯하여 동다송(東茶頌), 다신전(茶神傳), 십육탕품(十六湯品), 전다수기(煎茶水記), 대명수기(大明水記), 다보(茶譜) 등이 역주되었다. 또한, ‘다시선(茶詩選)’이라는 제목으로 진각선사(眞覺禪師), 완당 김정희(阮堂 金正喜)의 다시(茶詩)가 소개되었다. 이밖에 구전(口傳) 속의 차민요(茶民謠)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또한, ‘차인열전’이라는 제목으로 ‘충담선사, 고운 최치원, 원효대사, 이규보, 월감국사, 익제 이제현, 나옹화상, 초의선사’ 등의 인물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차 유적지에 관해서는 국내의 유적지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유적지를 소개하고 있다.

『설록차』의 하위영역 중 먼저, 한국 차문화의 역사에 대한 기사는 ‘전통차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으며, 외국 차문화의 역사는 ‘세계의 명차’라는 제목으로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스리랑카, 대만, 사할린, 남인도의 ‘차이’, 북인도의 앳삼차와 다즐링, 파키스탄, 태국, 아랍, 아브카지아 그리고 영국의 야외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다서(茶書)의 경우는 ‘다서평전’이라는 제목으로 ‘다신전(茶神傳), 동다송(東茶頌), 깃다양생기(喫茶養生記), 다신계절목(茶神契節目), 다경(茶經), 십육탕품(十六湯品), 농정신편(農正新篇), 대명수기(大明水記), 부차산수기(浮揚山水記), 전다수기(煎茶水記)’를 비롯하여 근대의 다서(茶書)인 최범술 著 「한국의 다도」, 오카쿠라 著 「茶の本」, 최계원의 「우리차의 재조명」, 김명배 편역 「한국의 다서」, 김명배의 「중국의 다도」, 일본차잡지 「淡交」, 정영선 「한국차문화」, 「한국다도자료총서 제1집」, 「현대차생활용어」, 「한국평

전」, 「설록차」, 「서울6백년사 제3권」, 「조선의 차와 선」, 「일본의 다도」, 「명원다화」, 「한국 식생활풍습」, 「신동다송」, 「예다론」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동다송(東茶頌)과 다신전(茶神傳)의 경우는 ‘쉽게 쓴 동다송’, ‘쉽게 쓴 다신전’이라는 제목으로 두차례나 반복 게재되었다. 다시(茶詩)는 ‘한국의 다시’, ‘다시의 이해와 감상’이라는 제목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명한 차인들의 명차시(名茶詩)를 추려 번역, 평설한 것으로 각 시대의 음다풍(飲茶風)과 차인들의 차정신(茶精神)을 공감할 수 있다. 차인(茶人)은 ‘우리나라의 다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신라시대, 고려시대 다인들을 비롯하여 김극기, 승려 충지, 이규보, 이색, 서거정, 김시습, 허균, 정약용, 김정희, 초의, 이상적’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우리나라 다인20’이라는 제목으로 20명의 다인(초의 선사, 다산 정약용, 효당 최범술, 한재 이복, 청평서사 이자현, 고산 윤선도, 목은 이색, 율곡 이이, 운곡 원천석, 추사 김정희, 유정 사명대사, 백운거사 이규보, 소치 허유, 나옹 혜근, 포은 정몽주, 우암 송시열, 매월당 김시습, 고운 최치원, 점필재 김종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또한 ‘화제의 다인’이라는 제목으로 ‘응송 박영희’에 대해 다루었다. 차 유적지는 ‘차유적지 순례’라는 제목으로 국내의 다양한 차 유적지를 탐방하였으며, ‘일본차계방문기’, ‘중국차문화기행’, ‘대만차계견문기’라는 제목으로 차 유적지가 소개되었다.

『차인(茶人)』은 차문화사 관련 주제유목의 하위영역인 한국 차문화의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락국 허황후, 고구려차, 백제시대 차생활고, 조선시대 차산지 연구’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외국 차문화의 역사에 관한 기사는 ‘세계 차문화사’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다도문화, 중국청차를 비롯하여 영국식 홍차에 이르기까지 소개하고 있다. 또한, 중국차문화에 관한 기사의 경우 유물을 통해 중국차문화를 해석하기도 하였다. 다서(茶書)에 관한 내용은 ‘다부(茶賦), 백장청규(百丈淸規), 다신전(茶神傳), 깍다양생기(喫茶養生記), 동다송(東茶頌)’

등이 다루어졌는데, 특히 동다송의 경우는 ‘외국어로 읽는 동다송’이라는 제목으로 동다송을 영어로 번역하여 신고 있다. 이는 한국의 차문화를 세계 속에 소개하는 한가지 방편으로 효과적인 시도라 할만하다. 다시(茶詩)에 관한 내용으로는 ‘초의선사, 함허득통 선사, 서산대사, 이색, 진각국사, 허균, 그리고 중국 당대의 시인인 노동’ 등의 시세계를 소개하고 있다. 차인(茶人)에 관한 내용으로는 ‘근대차인 재조명’이라는 제목으로 응송 박영희, 효당 최범술, 정산 한웅빈, 동포 정순웅, 우다 정원호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차 유적지에 관한 기사로는 국내의 경우는 초의선사 유적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해외의 경우는 ‘중국차문화답사기’, ‘일본의 차유적지’라는 제목으로 중국과 일본의 차유적지를 탐방하여 신고 있다.

『다담(茶談)』의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유목 중 먼저, 한국 차문화의 역사에 관한 기사는 ‘한국차문화사’라는 제목으로 ‘가야의 다향, 신라의 차문화 흔적, 고려시대의 차문화론, 려조시대의 다도문화, 조선조 후기의 다도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외국 차문화의 역사에 관한 기사는 ‘중국차문화사, 중국다예의 이해, 중국차의 원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중국차문화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일본차문화사, 일본다도의 종가, 공부차와 일본의 다도’라는 제목으로 일본차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 ‘해외 차생활 여행기’라는 제목으로 ‘소련의 전통차, 아랍인과 차, 러시아, 파키스탄의 밀크티, 영국인의 차생활’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세계의 음다풍속’이라는 제목으로 ‘베트남, 뉴질랜드, 몽골,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이집트, 호주, 홍콩,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국의 차문화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다서(茶書)에 관한 기사는 ‘다경(茶經), 다신전(茶神傳), 동다송(東茶頌), 동다기(東茶記)’ 등이 발행초기에 게재되었으며 ‘한국의 차문헌’이라는 제목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이규보의 파한집(破閑集), 최자의

보한집(補閑集),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이송인의 도은집(陶隱集), 정몽주의 포은집(圃隱集), 이제현의 익재집(益齋集), 원천석의 운곡선생시사, 이공의 가정집(稼亭集), 이색의 몽은집(夢隱集) 등이 다루어졌다. 다시(茶詩)에 관한 기사는 한국의 다시와 중국의 다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먼저 한국의 다시는 ‘다산(茶山), 대각국사, 범해각안, 나옹선사, 원감국사, 임춘, 백운선사, 이색, 이규보, 김시습’ 등의 다시(茶詩)가 소개되었으며, 중국의 다시는 ‘노동, 백락천, 소동파, 이태백, 주희, 육유, 백거이, 황정건 등’의 다시(茶詩)가 다루어졌다. 이밖에 한국의 다민요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또한, 차인(茶人)에 관한 기사는 여러 잡지들에 비해 가장 많은 차인들에 대해 수록하고 있다. ‘여류다인열전’, ‘역사 속의 다인’, ‘려조 중기의 다인들’, ‘서라벌의 차인을 찾아서’, ‘지리산 쌍계사의 다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소개된 다인들을 살펴보면, ‘보각국존 일연,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김시습, 점필재 김종직, 교산 허균, 우선 이상적, 송강, 유득공, 의천 대각국사, 육당 최남선, 서산대사, 추재 조수남, 자하 신위, 사명당 송운대사, 금남 최부, 추금 강위, 만해 한용운, 연담대사 유일, 소치 허유, 석전 박한영, 조위, 부휴대사, 권근, 허응당 보우, 태고 화상, 김윤식, 노봉 김극기, 원천석, 소요태능, 이수광, 유성룡, 정지상, 나옹화상, 용재 성현, 허암 정희량, 범해 각안선사, 근재 안축, 임계 유희인, 호암 문일평, 진각국사 혜심, 서경덕, 영수각 서씨, 유한당 홍씨, 허난설헌 등’이 있다. 차유적지에 관한 내용은 ‘내고장 차유적지’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차 유적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다담여행’이라는 제목으로는 ‘일지암, 칠불사, 통도사, 송광사, 동학사, 백련사, 다솔사, 화엄사, 해인사’ 등의 사찰 위주의 차유적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외의 경우는 ‘중국기행’, ‘인도순례기’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 있다.

『다로경권(茶爐經卷)』의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유목 중 한국 차문화의 역

사에 관한 내용은 ‘한국차의 내력’이라는 제목으로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차문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외국 차문화의 역사에 관한 기사는 ‘일본의 다문화, 중국음다풍속’ 와 같은 제목으로 동양권의 차문화사에 비중을 두고 있다. 다서(茶書)에 관한 내용은 다신전(茶神傳), 다소(茶疎), 다경(茶經), 동다송(東茶頌), 다부(茶賦), 깍다양생기(喫茶養生記)에 관해 연재하고 있다. 다시(茶詩)의 경우는 초의선사의 한시를 위주로 다루고 있으며, ‘한국의 차민요 조사연구’ 라는 제목으로 민요 장르에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차인(茶人)에 관한 내용은 ‘초의선사, 사명대사, 원효, 충담사, 염제신농, 금당, 한재 이목, 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 정약용, 추사 김정희, 익제 이제현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차 유적지는 다산초당과 초의출생지 위주로 타 전문잡지에 비해 다양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심(茶心)』의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유목의 하위영역 중 먼저, 한국 차문화의 역사에 대해서는 조선왕실의 차에 대해 다루었으며, 외국 차문화의 역사에 관한 기사는 ‘미주의 차문화’를 비롯하여 사할린, 자카르타, 대만의 차문화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다서(茶書)는 ‘다시 읽는 한국의 다서’라는 제목으로 문일평(文一平)의 다고사(茶故事)에 대해 연재하고 있다. 또한 ‘서지학상으로 본 한국의 다서’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다서(茶書)를 비롯하여 차와 관련있는 책을 신라-고려, 조선, 근대-현대 순으로 시대를 구분하여 목록화 시켜놓았다. 다시(茶詩)에 관한 내용은 ‘한국명다시 20선’이라는 제목으로 신라시대와 고려시대로 구분하여 설총, 김지장, 충담, 의천, 이규보의 다시를 소개하였다. 또한 ‘국문시가에 나타난 다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시조집에서 발췌한 차에 관한 시조의 작가와 내용 그리고 작품의 배경을 중심으로 감상을 곁한 평설을 기록하였다. 이밖에 ‘옛 선비들의 다도수필’이라는 제목으로 수필 장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다루었다. 또한 차인(茶人)에 관한 내용은 ‘내가 본 응송스님,

효당론, 금당'이라는 제목으로 근현대의 인물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조선여류시인에 관한 내용을 김 부용당, 이매창, 임백당에 대해 살펴보았다. 차 유적지에 관한 기사는 '현대 다문화의 발상지, 내고장 차문화, 다심의 고향을 찾아서'라는 다양한 기사제목으로 국내의 유적지뿐만 아니라 '중국시행'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유적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화백다론(和白茶論)』은 한국 차문화의 역사에 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로 일본과 중국의 차문화사에 대해 다루어졌다. 차 유적지 역시 '일본 경도 탐방'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유적지 위주로 소개되었다. 또한, 다서(茶書)에 대해서는 다경(茶經)에 대해 다루고 있다.

『차문화(茶文化)』는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유목의 하위영역으로 먼저, 한국 차문화의 역사에 관한 내용은 '기록으로 살펴본 차 역사'라는 제목으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차문화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가야차 전래의 역사·지리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최초의 차전래와 시배지에 대하여 역사, 지리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외국 차문화의 역사에 관한 내용은 '중국차 박물학'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차(茶)에 관해 직접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중국의 차문화에 대해 연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생활차'와 '일본의 다도'라는 제목으로 일본 속의 차가 어떠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해 일본의 차문화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다서(茶書)에 관한 내용으로는 다부(茶賦)와 다설(茶說)에 대한 번역이 게재되었으며, '다시 읽는 명저'라는 제목으로 오래 전에 발행된 차 관련 서적들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아암 혜장, 정몽주, 춘원 이광수, 서거정, 서산대사 등의 다시(茶詩)들을 선보이고 있다. 차 유적지에 관한 기사는 '한국의 다정답사'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다정을 순례하고 있으며, 국외의 유적지의 경우 '일본 3대 도요지'를 비롯하여 '일본 차유적답사'라는 제목으로 일본

의 차 유적지에 관한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는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유목의 하위영역에 대한 기사가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동 차문화(鰐洞 茶文化)』의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유목에 해당하는 하위영역으로는 ‘고대사에 나타나는 우리차’라는 제목으로 한국 차문화의 기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차 유적지 답사에 관한 내용이 주로 하동 지역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다도(茶道)』의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유목의 하위영역 중에 먼저, 한국의 차문화는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전반적인 차문화사에 대해 다루어졌으며, 외국의 차문화사는 일본차문화, 중국차문화와 더불어 스위스, 터키 등의 유럽권의 차문화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다서(茶書)에 관한 기사 내용은 육우의 「다경」과 초의선사의 「동다송」에 대해 다루었으며, 다시에 관한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야나기 무네키의 다도에 관한 수필이 5회에 걸쳐 번역되어 연재되었다. 또한 차인(茶人)에 관한 내용으로는 ‘역사속의 다인’이라는 제목으로 의재 허백련, 초의 장의순, 소치 허련에 대해 다루어졌다. 차 유적지에 관한 기사는 국내의 차 유적지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유적지 뿐만 아니라 차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을 지역권별로 탐방하는 기사도 연재되었다.

『선문화』의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유목 중 하위유목에 해당하는 한국 차문화의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는 중국 선종의 유입시기인 9세기말인 신라말에 관한 내용이 선종의 유입과 관련하여 소개되었다, 외국차문화의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는 주로 중국 차문화 위주로 다루어졌다. 다서(茶書)의 경우는 문일평(文一平)의 다고사(茶故事)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또한, 다시(茶詩)는 ‘백운거사의 시세계’, ‘이규보의 시세계’라는 제목으로 백

운거사 이규보의 다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두보의 다시(茶詩)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차인(茶人)에 관한 내용으로는 근현대인물인 효당과 응송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 차 유적지에 관한 내용은 ‘중국 선차의 원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탐방하였다.

『차의 세계』의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유목의 하위영역인 한국 차문화의 역사에 관한 기사는 한국 차문화와 불교의 선종과 연관지어 다루어졌으며, ‘역대 제왕들의 차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경덕왕과 충담사, 가락국 왕궁의 차, 태조 왕건으로부터 내려온 고려의 차풍습’ 등의 한국 왕실의 차문화에 대해서도 연재하여 다루었다. 외국 차문화의 역사에 대한 기사는 중국차문화에 관한 기사와 일본차문화에 관한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밖에 영국, 스리랑카, 아프리카 등의 차문화에 관한 기사도 게재되었다. 다서(茶書)에 관한 내용으로는 먼저, 「다경(茶經)」, 「동다송(東茶頌)」, 「다부(茶賦)」와 같은 차고전에서부터 ‘다시 읽는 차서’라는 제목으로 근현대에 출간된 ‘『韓國의 茶道』와 『朝鮮의 茶와 禪』’에 관해 역주 및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다시(茶詩)는 ‘불교의 차시세계’라는 제목으로 다루어졌다. 이밖에 ‘역사속의 차인’이라는 제목으로 진감국사, 한재이목, 육우, 의재 허백련, 응송 박영희, 다산 등등의 인물들이 다루어졌으며, ‘우리 시대를 살다간 차인’이라는 제목으로 근현대사 속의 차인들에 대해서도 다뤄지고 있다. 대부분의 차 전문잡지에서 남성에 국한된 차인(茶人)이 다뤄졌으나 『차의 세계』의 경우는 여성 차인에 대해서도 다루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차와 관련된 유적지는 국내의 경우는 주로 불교 사찰 중심으로 다루어졌으며, 국외의 경우 중국의 차문화 유적지들이 주로 실렸다.

『Tea & People』의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유목의 하위영역 중에 먼저, 한국 차문화의 역사에 관한 기사내용은 ‘차문화 입문’이라는 제목으로 신라, 고

려, 조선시대에 대해 다루었으며, 외국의 차문화사에 관한 내용으로는 중국의 차문화사, 일본의 차문화사, 유럽의 차문화사, 미국의 차문화사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다. 또한 차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차와 연관된 미국의 독립전쟁과 중국의 아편전쟁에 관해서도 소개되고 있다. 다서(茶書)에 관한 기사는 동다송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만화를 통해 동다송을 소개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차인(茶人)에 관한 내용으로는 한재 이복의 차정신에 관해 연재되기도 하였다. 차 유적지에 관한 기사는 ‘차의 기원을 찾아서’와 ‘중국 차문화 답사기’라는 제목으로 국내보다는 국외의 중국지역에 많이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주의 차문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루었다.

각 전문잡지별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차문화의 역사에 관한 기사는 <표Ⅲ-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화백다론(和白茶論)』,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 『다심(茶心)』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잡지들에서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차문화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다심(茶心)』의 경우는, 조선시대의 차문화만을, 『선문화(禪文化)』는 삼국시대의 차문화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둘째, 외국 차문화의 역사에 관한 기사는 <표Ⅲ-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잡지들에서는 동양권의 차문화사에 대해 다루고 있는 반면, 서양의 차문화사에 관하여는 『설록차』, 『차인(茶人)』, 『다담(茶談)』, 『다심(茶心)』, 『하동 차문화』, 『다도(茶道)』, 『차의 세계』, 『Tea & People』의 전문잡지에 한하여 소개되고 있다. 동양권의 차문화사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일본, 중국 위주로 다루고 있으며, 서양권의 차문화사에 관한 내용은 유럽과 미국의 차문화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밖에 『Tea & People』의 경우는 차와 연관된 미국의 독립전쟁과 중국의 아편전쟁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셋째, 다서(茶書)에 관한 기사는 <표Ⅲ-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다송(東茶頌)은 『다심(茶心)』, 『화백다론(和白茶論)』, 『차문화(茶文化)』,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 『선문화(禪文化)』를 제외한 전문잡지들에서 소개되었으며, 다신전(茶神傳)은 『다원(茶苑)』, 『설록차』, 『차인(茶人)』, 『다담(茶談)』, 『다로경권(茶爐經卷)』의 전문잡지들에 한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다부(茶賦)는 『설록차』, 『차인(茶人)』, 『다로경권(茶爐經卷)』, 『차문화(茶文化)』, 『하동 차문화』, 『차의 세계』에서 소개하고 있으며, 다경(茶經)은 『다원(茶苑)』, 『설록차』, 『다담(茶談)』, 『다로경권(茶爐經卷)』, 『화백다론(和白茶論)』, 『하동 차문화』, 『다도(茶道)』, 『선문화(禪文化)』, 『차의 세계』에서 소개하고 있다. 깍다양생기(喫茶養生記)는 『설록차』, 『차인(茶人)』, 『다로경권(茶爐經卷)』에서 다루어졌다.

이밖에, 십육탕품(十六湯品), 전다수기(煎茶水記), 대명수기(大明水記), 다보(茶譜), 다신계절목(茶神契節目), 십육탕품(十六湯品), 농정신편(農正新篇), 부차산수기(浮嵯山水記), 다소(茶疎), 문일평(文一平)의 다고사(茶故事), 다설(茶說)를 비롯하여 백장청규(百丈淸規), 삼국사기(三國史記),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이규보의 과한집(破閑集), 최자의 보한집(補閑集),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이송인의 도은집(陶隱集), 정몽주의 포은집(圃隱集), 이제현의 익재집(益齋集), 원천석의 운곡선생시사, 이공의 가정집(稼亭集), 이색의 몽은집(夢隱集) 등이 다루어졌다. 또한, 근대의 다서(茶書)인 최범술 著 「한국의 다도」, 오카쿠라 著 「茶の本」, 최계원의 「우리차의 재조명」, 김명배 편역 「한국의 다서」, 김명배의 「중국의 다도」, 일본차잡지 「淡交」, 정영선 「한국차문화」, 「한국다도자료총서 제1집」, 「현대차생활용어」, 「한국평전」, 「설록차」, 「서

을6백년사 제3권」, 「조선의 차와 선」, 「일본의 다도」, 「명원다화」, 「한국 식생활풍습」, 「신동다송」, 「예다론」 등이 소개되었다.

넷째, 다시(茶詩)에 관한 기사는 <표Ⅲ-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라시대의 다시는 『다심(茶心)』에서 설총, 김지장과 충담의 다시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고려시대의 다시(茶詩)는 『다원(茶苑)』, 『설록차』, 『다담(茶談)』, 『다심(茶心)』, 『화백다론(和白茶論)』, 『선문화(禪文化)』, 『차의 세계』에 한하여 다루어졌다. 다루어진 고려시대의 다시(茶詩)로는 대각국사 의천, 이규보, 정몽주, 진각국사, 이인로, 이자현, 이제현, 이색, 원감국사, 나옹선사, 임춘, 백운선사의 다시가 있다. 조선시대의 다시는 『다원(茶苑)』, 『설록차』, 『차인(茶人)』, 『다담(茶談)』, 『다로경권(茶爐經卷)』, 『차문화(茶文化)』에서 다루었다. 소개된 조선시대의 다시(茶詩)로는 김시습, 함허, 보우, 서산, 추사, 초의, 허균, 다산, 범해각안, 아암 혜장, 서거정의 다시가 있다. 또한, 중국의 다시에 관해서는 『차인(茶人)』, 『다담(茶談)』, 『선문화(禪文化)』에 한하여 중국 당대의 노동을 시작으로, 백락천, 소동파, 이태백, 주희, 육유, 백거이, 황정건 그리고 두보의 다시가 소개되었다.

이밖에 구전 속의 차민요, 차시조 그리고 다도수필에 이르기까지 문학분야의 다양한 장르가 소개되었다.

다섯째, 다인(茶人)에 관한 기사는 <표Ⅲ-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라시대의 다인(茶人)은 『다원(茶苑)』, 『설록차』, 『다담(茶談)』, 『다로경권(茶爐經卷)』, 『하동 차문화』, 『차의 세계』에 한하여, 충담선사, 고운 최치원, 원효대사, 진감국사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고려시대의 다인은 『다원(茶苑)』, 『설록차』, 『다담(茶談)』, 『다로경권(茶爐經卷)』, 『선문화(禪文化)』에 한하여 진각국사, 김극기, 충지, 이규보, 이색, 이자현, 운곡 원천석, 나옹 혜근, 포은 정몽주, 대각국사, 원감국사, 임춘, 백운선사, 익제 이제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조

전시대의 다인(茶人)은 『다원(茶苑)』, 『설록차』, 『다담(茶談)』, 『다로경권(茶爐經卷)』, 『차문화(茶文化)』, 『하동 차문화』, 『다도(茶道)』, 『차의 세계』의 전문잡지들에서 소개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초의선사, 서거정, 김시습, 허균, 정약용, 추사 김정희, 이상적, 한재 이목, 고산 윤선도, 율곡 이이, 유정 사명대사, 소치 허유, 우암 송시열, 매월당 김시습, 점필재 김종직, 허균, 송강, 서산대사, 추재 조수남, 자하 신위, 사명당 송운대사, 금남 최부, 추금 강위, 연담대사 유일, 조위, 부휴대사, 허응당 보우, 태고 화상, 소요태능, 이수광, 유성룡, 용재 성현, 허암 정희량, 범해각안, 임계 유희인, 서경덕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근·현대의 다인(茶人)에 관해서는 『설록차』, 『차인(茶人)』, 『다담(茶談)』, 『다심(茶心)』, 『차문화(茶文化)』, 『하동 차문화』, 『다도(茶道)』, 『선문화(禪文化)』, 『차의 세계』에 한하여 소개되었으며, 근·현대의 다인(茶人)으로는 응송 박영희, 효당 최범술, 금당 최규용, 정산 한응빈, 동포 정순웅, 우다 정원호, 만해 한용운, 육당 최남선, 석전 박한영, 호암 문일평, 의재 허백련 등에 대해 다루어졌다. 여류다인으로는 조선시대의 여류다인에 한하여 다루어졌으며, 『다담(茶談)』, 『다심(茶心)』에서 영수각 서씨, 유한당 홍씨, 허난설현, 김부용당, 이매창, 임벽당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여섯째, 차 유적지에 관한 기사는 <표Ⅲ-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내의 차 유적지에 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문잡지에서 소개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화백다론(和白茶論)』,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 『선문화(禪文化)』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문잡지에서 다루고 있다. 국외 차유적지의 경우는 『다로경권(茶爐經卷)』, 『화백다론(和白茶論)』,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 『하동 차문화』, 『다도(茶道)』를 제외한 모든 전문잡지에서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대만, 인도에 관해 소개되었다.

2) 행다례에 관한 주제

<표Ⅲ-2>에서 볼 때, 행다례에 관한 주제유목의 총 기사 444건 중에, 다실(茶室)에 관한 기사가 131건(29.50%)으로 가장 많았고, 다구(茶具)에 관한 기사가 102건(22.97%), 다례법(茶禮法)에 관한 기사가 91건(20.50%), 물에 관한 기사가 66건(14.86%), 다복(茶服)에 관한 기사가 54건(12.1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행다례 관련 주제유목에 따른 전문잡지들의 게재여부는 다음의 <표Ⅲ-4>와 같다.

<표Ⅲ- 4> 행다례 관련 주제유목의 하위 영역별 게재상황

하위영역 \ 잡지명	다원	실록차	차인	다담	다로경권	다심	화백다론	차문화	차연구회보	하동차문화	다도	선문화	차의세계	차와사람
물		○	○	○	○	○		○			○			○
다구(茶具)	○	○	○	○	○	○	○			○	○		○	○
다복(茶服)	○		○	○							○		○	
다실(茶室)	○	○	○	○		○	○						○	○
다례법	○	○	○	○	○	○	○	○			○			

『다원(茶苑)』의 행다례에 관한 주제유목에 해당하는 하위영역으로는 ‘우리나라 다구의 변형사’를 통해 다구(茶具)를 살펴보았으며, 이밖에 음다(飲茶)시(時)에 사용되는 찻상과 찻상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매월 새로

이 게재되는 다례복(茶禮服)으로, 익숙치 않은 한복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주었다. 또한 다실에 관한 기사로는 개인들의 찻자리인 다신탐방을 통해 다양한 찻자리에서의 아름다움을 소개하였다. 다례법(茶禮法)에 관한 내용으로는 ‘우리들의 다례법’이라는 내용으로 전국의 차인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다례법을 소개하는 장(場)을 마련하고 있다.

『설록차』의 행다례에 관한 주제유목의 하위영역 중 먼저 물에 관한 기사는 ‘물이야기’로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다구(茶具)에 관한 기사는 ‘다구백과’라는 제목으로 ‘순금잔과 잔대, 가야의 손잡이 잔, 신라의 인화문잔, 가야의 토기, 고려청자 찻종, 고려시대 은잔 등’에 대해 연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다구’라는 제목으로 다식판, 청자향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밖에 ‘좋은 다구 고르는 법’과 ‘다기구입요령’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다실(茶室)에 관한 기사는 ‘다실꾸미기’라는 제목으로 차인들이 꾸민 자신들의 다실을 공개하는 형식으로 연재되었다. 또한, 다례법(茶禮法)은 설록차 다례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차인(茶人)』의 행다례에 관한 하위영역의 기사로는 먼저, 물에 대한 기사는 ‘한잔의 차를 위한 물 이야기’를 통해 물 선택의 유의점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다구(茶具)에 관한 기사는 ‘찻잔 이야기’, ‘다기의 미학’, ‘우리 찻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다루어졌으며, ‘나의 애장다구’라는 제목으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다구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다. 다복(茶服)에 관한 기사로는 ‘이달의 차옷’이라는 제목으로 매 월 새롭게 차옷을 선보였으며, ‘찻자리와 복식’이라는 제목으로 찻자리별 구별되는 복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다실(茶室)에 관한 내용으로는 ‘꽃이 있는 다실, 차실의 조명문화를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인테리어적인 면에서의 다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일본의 다실’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다실의 구조와 형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다례법에 관한

내용으로는 손님을 맞이하는 접빈다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세시다례, 칠석다례, 세배다례, 부도헌 다례, 헌공다례, 조선왕조 궁중연회사신맞이 다례’ 등의 의식다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다담(茶談)』의 행다례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로는 먼저 물에 관한 기사는 ‘물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물의 중요성, 좋은 물의 중요성, 효과적인 물 마시는 법, 좋은 물의 선택’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구(茶具)에 관한 기사는 한국, 중국, 일본의 다기를 비교하는 기사와 더불어, 다관, 다완, 찻잔, 차시 등의 다양한 다구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기의 생산과 유통의 과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다복(茶服)의 경우는 ‘한국전통다례복’, ‘다례복 연구’,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다례복’이라는 제목으로 고증을 통한 다례복에 대해 논하고 있다. 다실(茶室)에 관한 기사는 ‘한국의 다정’, ‘한국의 다실’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다실의 구조와 의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일본의 다실’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다실과 우리의 다실을 비교하고 있다. 이밖에 ‘멋있는 우리집 다실’이라는 제목으로 개인 소유의 다실을 감상하기도 하였다. 다례법의 경우 일상적으로 번거롭지 않게 차를 우리는 생활다례법에서부터 의식다례의 일종인 헌공다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다법과, 일본 다법 그리고 한국의 행다법에 대해서 각각의 특색을 규명하고 있다.

『다로경권(茶爐經卷)』의 행다례에 관한 주제유목 중 물에 관한 내용으로는 ‘차와 물’, ‘물의 품수’ 등의 제목으로 찻물의 선택에 대한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다구(茶具)는 한국의 다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다례법에 관한 기사는 ‘기초다례’라는 제목으로 일상적인 생활다례법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다경원의 다례법’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심(茶心)』의 행다례에 관한 기사 중 먼저, 물에 관한 내용은 ‘한국의 다천(茶泉)·다수(茶水)’라는 제목으로 찻물로 적합한 좋은 물이 있는 곳을 선

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다구(茶具)는 ‘다기열전’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으며, 특히 자사다호, 의홍다호와 같은 중국의 다구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또한, 다실(茶室)에 관한 내용은 ‘아름다운 삶을 위해’, ‘나의 다실(茶室)’이라는 제목으로 개인들의 다실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해외다실순례’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다실이 다루어졌다. 다례법(茶禮法)에 관한 기사는 오행다법, 말차점다법, 풍류다법 등이 사진과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게재되었다.

『화백다론(和白茶論)』의 행다례에 관한 하위영역으로는 음다 시 사용되는 찻잔, 다완과 같은 다구들에 대한 내용이 간략하게 소개되었으며, 이도자완의 감상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차실 공간의 확보’, ‘다실의 조형과 건설체험’ 그리고 ‘차실공간의 조형’의 제목으로 다실(茶室)에 관한 기사는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다례법에 관해서는 회지(會誌)의 성향이 강한만큼 다양한 다법을 신기보다는 ‘화백다법’의 소개를 통해 화백다회의 찻자리와 찻물과 불 그리고 행위동작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일상에서의 차를 내는 모습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차문화(茶文化)』의 행다례에 관한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기사로는 먼저, 음다 시의 찻물에 대해 물의 팔덕(八德)과 진수(眞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다례법(茶禮法)은 의식다례에 관해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유럽가의 다례(茶禮)와 봉차(奉茶), 불교의 다례, 헌공다례 그리고 규방다례 등이 다루어졌다. 특히 규방다례의 경우의 한국차문화협회가 지향하고 있는 행다예절(行茶禮節)이기도 하다.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와 『선문화(禪文化)』는 행다례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지 않았다.

『하동 차문화(鰍洞 茶文化)』의 행다례에 관한 하위영역의 내용은 조선시대의 도자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녹차, 홍차, 우롱차 마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물을 끓이는 방법에서부터 차와 물의 양, 차를 우려내는 물의 온도와 시간 그리고 다식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음다법인 생활다례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다도(茶道)』의 행다례에 관한 주제유목의 하위영역 중, 첫째, 물과 관련된 기사는 '물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음다(飲茶) 시(時)에 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을 하였고, 다완에 관한 기사가 매 권마다 상세히 연재되었다. 이밖에 다복(茶服)은 '한복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다. 다례법에 관한 기사는 '우리 색깔 우리 다법(茶法)'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다법들이 소개되었다.

『차의 세계』의 행다례에 관한 주제유목의 하위영역 중 첫째, 다구(茶具)와 관련된 기사는 '잃어버린 우리 사발을 찾아서'와 '이도차완의 역사'라는 두 제목으로 알 수 있듯이 이도차완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차 전문잡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례복(茶禮服)에 관한 내용은 전통한복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동양 삼국의 다실 비교를 통해 동양 삼국의 차문화의 특성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생활다례나 의식다례와 같은 다례법에 관해서는 다루지지 않고 있다.

『Tea & People』의 행다례에 관한 하위영역인 물에 관한 내용으로는 '맑은 물', '차와 물'이라는 제목으로 찻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전자의 경우, 전국의 맑은 물이 있는 명소를 소개하는 기사를 주로 다루기도 했다. 또한 차수저, 찻상, 돌다반, 다기 등의 다구에 대해 폭넓게 다루었으며, '한국 찻사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다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루었다. 또한 '나의 찻자리'라는 제목으로 다실을 소개함과 동시에 '다실이 있는 풍경'이라는 기사 제목을 통해 다실의 미(美)를 강조함으로써 다실을 꾸밈에 대한 제안서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전문잡지별 행다례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물에 관한 내용은 <표Ⅲ- 4>에서 볼 수 있듯이, 『설록차』, 『차인(茶人)』, 『다담(茶談)』, 『다로경권(茶爐經卷)』, 『다심(茶心)』, 『차문화(茶文化)』, 『다도(茶道)』, 『Tea & People』에 한하여 소개되었으며, 찻물의 중요성, 물 선택의 중요성, 찻물로 적합한 좋은 물이 있는 명소 소개, 물의 팔덕(八德)과 진수(眞水), 물을 끓이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둘째, 다구(茶具)에 관한 내용은 <표Ⅲ-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차문화(茶文化)』,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 『선문화(禪文化)』를 제외한 모든 전문잡지에서 언급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다구의 변천사, 좋은 다구 고르는 방법, 다기구입요령, 한국, 중국, 일본의 다기 비교, 다기의 생산 및 유통, 이도다완에 관한 내용, 찻상과 찻상보, 차수저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셋째, 다복(茶服)에 관한 내용은 <표Ⅲ-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원(茶苑)』, 『차인(茶人)』, 『다담(茶談)』, 『다도(茶道)』, 『차의 세계』 등에서 매월 다양한 다례복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찻자리별 구별되는 복식에 대한 내용,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다례복을 고증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다례복이라하면, 전통한복을 소재로 하여 다루고 있다.

넷째, 다실(茶室)에 관한 내용은 <표Ⅲ-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원(茶苑)』, 『설록차』, 『차인(茶人)』, 『다담(茶談)』, 『다심(茶心)』, 『화백다론(和白茶論)』, 『차의 세계』, 『Tea & People』 등의 전문잡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주로 개인 소유의 다실을 소개하는 기사의 비중이 많았으며, 일본의 다실 구조와 형태를 통한 우리나라의 다실과의 비교 기사와 더불어 동양삼국의 다실을 비교하는 내용이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다섯째, 다례법(茶禮法)에 관한 내용은 <표Ⅲ-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 『하동 차문화』, 『선문화(禪文化)』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잡지에서 실고 있다. 전국의 차인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다례법이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기관지(機關誌)의 경우는 각 기관을 대표하는 다례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일상적으로 쉽게 접하는 생활다례와 의식다례로 구분하여 다루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의 다법과 일본 다법과 한국의 행다법의 비교를 통해 각각의 특색을 규명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다법(茶法)들이 고안되었지만 저마다의 폐쇄성, 다법 무용론이 득세하면서 전체 차인들에게 선보이거나 평가받기보다는 같은 단체나 자체 다회에서만 통용, 소개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특히 월간 『다도(茶道)』의 ‘우리 색깔 우리 다법’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시도는 차인들이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는 장(場)을 열어놓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3) 차와 예술에 관한 주제

<표Ⅲ-2>에서 볼 때, 차와 예술에 관한 주제유목의 총 기사 478건 중에, 차요리에 관한 기사가 239건(50.00%)으로 가장 많았고, 다화(茶花)에 관한 기사가 110건(23.01%), 다화(茶畵)에 관한 기사가 67건(14.02%), 다악(茶樂)에 관한 기사가 42건(8.79%) 그리고 수공예에 관한 기사가 20건(4.18%)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차와 예술 관련 주제유목에 따른 전문잡지들의 게재상황은 다음의 <표Ⅲ-5>와 같다.

<표Ⅲ- 5> 차와 예술 관련 주제유목의 하위 영역별 게재상황

하위영역 \ 잡지명	다 원	설 록 차	차 인	다 담	다 로 경 권	다 심	화 백 다 론	차 문 화	차 연 구 회 보	하 동 차 문 화	다 도	선 문 화	차 의 세 계	차 와 사 람
다화(茶畫)		○		○		○					○		○	
다화(茶花)	○		○	○		○	○	○			○		○	
다악(茶樂)		○	○				○				○			
수공예			○					○						○
차요리	○	○	○	○		○		○	○	○	○		○	○

『다원(茶苑)』의 차와 예술에 관한 하위영역으로는 매월 새로운 소재와 재료로 다화(茶花)와 다식(茶食)을 소개하였다. 또한 다식의 경우 요리법과 다식에 얽힌 야화(野話)에 대한 언급도 덧붙여졌다.

『설록차』의 차와 예술에 관한 기사는 ‘고미술(古美術)에 보이는 차(茶), 차속(茶俗)’, ‘차와 그림은 한맛’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다화(茶畫)가 선보이고 있다. 다악(茶樂)의 경우는 ‘차와 국악’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전통음악과 차를 연관지어 설명하였으며, 다른 전문잡지에서 보기 드물게 ‘차와 함께하는 팝음악’이라는 제목과 더불어 하이든의 ‘교향곡 세계’, 슈베르트의 ‘미완성교향곡’, 멘델스존의 ‘이탈리아’ 등의 클래식 곡과 차를 접목시켜 설명하고 있다. 차요리의 경우, 차를 이용한 음식뿐만 아니라 차와 곁들임 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계절에 적합한 계절별 차음식과, 명절 시의 차음식, 차로 만든 디저트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이밖에 차와의 여타 음식들의 궁합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기사가 있다.

『차인(茶人)』의 차와 예술에 관한 주제유목 중 다화(茶花)에 관한 내용은 ‘이달의 다화(茶花)’라는 제목으로 매월 새롭게 다화작품이 소개되었다. 다악(茶樂)에 관한 기사는 ‘한국인의 풍류음악’과 같이 차와 우리음악을 접목시킨 내용뿐만 아니라 ‘팝음악과 차의 만남’에서와 같이 외국음악과의 조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수공예에 관한 기사는 ‘매듭이야기’, ‘조각보’에 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차요리에 관한 내용으로는 ‘차를 이용한 요리와 차와 어울리는 요리’에 관해 연재하였으며 매월 다양한 다식을 선보였다. 또한 6대 다류와 어울리는 다식을 각각 소개하기도 하였다.

『다담(茶談)』의 차와 예술에 관한 주제유목의 하위영역으로 다화(茶畵)는 ‘차와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다루어졌으며, 중국의 다화(茶畵)도 함께 소개되었다. 또한, 다화(茶花)는 매월 새로운 다화를 선보이며, 꽃꽂이 방법에 대한 소개와 함께 ‘다화(茶花) 이야기’, ‘화목(花木)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다루어졌다. 차요리에 관한 기사는 ‘이달의 차음식’이라는 제목으로 매월 새로운 차요리를 선보였으며, 차와 어울리는 곁들임 음식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차를 이용한 명절음식’, ‘계절 차음식’ 그리고 ‘명인가의 차음식’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의 다식’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다루었으며, 중국차음식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다로경권(茶爐經卷)』과 『선문화』의 차와 예술에 관한 내용의 기사는 소개되지 않았다.

『다심』의 차와 예술에 관한 하위영역 중 다화(茶畵)에 관한 내용은 ‘차와 그림과의 만남, 차공양 그림, 한국의 명차그림, 한국의 차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하게 연재되었다. 다화(茶花)는 ‘다심 꽃꽂이’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전통병화(韓國傳統瓶花)에 관한 이론과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차요리에 관한 기사는 ‘다식강좌’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다.

『화백다론(和白茶論)』의 차와 예술에 관한 주제는 ‘차와 거문고 음악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과 ‘차와 음악에서 중정의 멋’과 같은 제목에서와 같이 다악(茶樂)에 관한 기사가 주로 다루어졌다. 또한 찻자리에서의 꽃에 대한 영역도 언급하고 있다.

『차문화(茶文化)』의 차와 예술에 관한 하위영역으로는 다화(茶花)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찻자리 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다화가 여러 차 에서도 소개되었다. 그러나 『차문화』의 경우는 좀더 차실의 정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재배분(栽培盆) 그대로의 야생화를 찻자리 꽃의 소재로 이용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차소품’이라는 제목으로 바느질(침선) 분야, 한지공예, 뜨개질 등 차생활에 필요로 하는 소품을 만드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만의 차생활의 아름다움을 표현코자 하였다.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의 차와 예술에 관한 주제유목의 하위영역으로는 차요리에 관한 기사가 발췌되었다. 차요리에 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차국수 제조를 위한 가루녹차 혼합비율 및 제조법’, ‘녹차 딸기(사과)썸 제조방법’, ‘차농축액과 가루차 이용 가능성 울며짚 제조방법’ 위 세가지 이다.

『하동 차문화(鰐洞 茶文化)』의 차와 예술에 관한 내용으로는 ‘작설차로 만든 매작과, 녹차 볶음밥, 차 영양 들솥밥, 차죽, 차나물과 각색비빔밥, 차새알미역국, 햇차나물밥, 차 콩국수, 차잎 계란전밥’ 등 건강식으로서의 차요리를 연재하여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다도(茶道)』의 차와 예술에 관한 하위영역의 기사는 먼저, ‘차가 있는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송하수업도(松下授業圖), 선동전차(仙童煎茶), 죽리탄금도(竹裏彈琴圖)’ 등과 같은 다화(茶畵)가 소개되었으며, 매월 찻자리에서의 꽃꽂이(茶花)를 다루고 있다. 또한 ‘다례와 다악(茶樂)’이라는 제목으로 차음악에 대한 기사도 다루었다. 차를 이용한 음식뿐만 아니라 차와 어울리는 음식을

‘차요리’라는 기사제목으로 다루었다.

『차의 세계』의 차와 예술에 관한 하위영역의 기사는 먼저, ‘차가 있는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품차도(品茶道), 사명도(事茗圖), 송하수업(松下授業)’ 등의 다화(茶畵)가, ‘차꽃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다화(茶花)가 소개되었다. 차를 이용한 다양한 차요리 등도 다루어졌다.

『Tea & People』 차와 예술에 관한 하위영역의 내용은 먼저 실생활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차요리를 소개하였으며, 매 월 다양한 꽃차에 관해 다루고 있다. 또한 ‘내가 만들어 보는 DIY’는 제목으로 차와 관련된 공예품(차받침, 찻상보)의 제작 방법을 싣고 있다.

각 전문잡지별 차와 예술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화(茶畵)에 관한 내용은 <표Ⅲ-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설록차』, 『다담(茶談)』, 『다심(茶心)』, 『다도(茶道)』, 『차의 세계』에서 다루고 있다. 송하수업도(松下授業圖), 선동전차(仙童煎茶), 죽리탄금도(竹裏彈琴圖), 품차도(品茶道), 사명도(事茗圖), 송하수업(松下授業)와 같은 우리의 다화(茶畵)에서부터 중국의 다화(茶畵)에 이르기까지 소개하고 있다.

둘째, 다화(茶花)에 관한 내용은 <표Ⅲ- 5>에 나타나 있듯이, 『다원(茶苑)』, 『차인(茶人)』, 『다담(茶談)』, 『다심(茶心)』, 『화백다론(和白茶論)』, 『차문화(茶文化)』, 『다도(茶道)』, 『차의 세계』에서 매월 다양한 소재의 꽃으로 다화(茶花)를 소개하는 동시에 다화의 꽃꽂이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찻자리에서의 꽃의 영역에 대한 기사를 통해 찻자리의 적합한 다화(茶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셋째, 다악(茶樂)에 관한 내용은 <표Ⅲ-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설록

차』, 『차인(茶人)』, 『화백다론(和白茶論)』, 『다도(茶道)』, 『차의 세계』, 『Tea & People』에서 다루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한국전통음악인 국악과 차를 접목시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밖에, ‘차와 함께하는 팝음악’이라는 제목과 더불어 하이든의 ‘교향곡 세계’, 슈베르트의 ‘미완성교향곡’, 멘델스존의 ‘이탈리아’ 등의 클래식 곡과 차를 연결시킨 새로운 시도의 내용을 신기도 하였다.

넷째, 수공예에 관한 내용은 <표Ⅲ- 5>에 나타나 있듯이, 『차인(茶人)』, 『차문화(茶文化)』, 『차의 세계』, 『차와 사람』의 전문잡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차와 관련된 소품을 소개를 함과 동시에 차와 관련된 공예품들의 제작 방법을 다루고 있다.

다섯째, 차요리에 관한 내용은 <표Ⅲ-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14권의 전문잡지 중 11종인 『다원(茶苑)』, 『설록차』, 『차인(茶人)』, 『다담(茶談)』, 『다심(茶心)』, 『차문화(茶文化)』,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 『하동 차문화』, 『다도(茶道)』, 『차의 세계』, 『차와 사람』 등에서 소개되었다.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폭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차요리에 관한 기사는 그만큼 차문화 속에서 차요리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차요리에 관한 내용은 주로, 차를 이용한 음식뿐만 아니라 차와 함께 곁들임이 가능한 음식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 계절별 차요리, 명절 시의 차요리, 명인가의 차음식, 차로 만든 디저트를 소개하였으며, 차와 다른 음식들과의 궁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밖에 중국의 차음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생활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차요리와 더불어 가루차나 티백차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음용법에 대해서도 연재하고 있다. 차빵, 차국수, 차아이스크림 등의 차식품들도 대중화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이러한 차요리의 다양한 활용법은 차의 대중화를 좀더 앞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차와 산업에 관한 주제

<표Ⅲ-2>에서 볼 때, 차와 산업에 관한 주제유목의 총 기사 494건 중에, 찻집에 관한 기사가 151건(30.57%)으로 가장 많았고, 행사, 전시 및 축제에 관한 기사가 139건(28.14%), 제다업에 관한 기사가 90건(18.22%), 다기판매점에 관한 기사가 66건(13.36%) 그리고 다회(茶會)에 관한 기사가 48건(9.72%)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차와 산업 관련 주제유목에 따른 전문잡지들의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다.

<표Ⅲ- 6> 차와 산업 관련 주제유목의 하위영역별 게재상황

하위영역 \ 잡지명	다원	설록차	차인	다담	다로경권	다심	화백다론	차문화	차연구회보	하동차문화	다도	선문화	차의세계	차와사람
다기판매점		○		○							○			○
찻집		○	○	○		○					○		○	○
제다업	○	○	○	○		○		○	○	○		○	○	○
행사, 전시 및 축제	○	○	○	○	○	○	○	○	○	○	○	○	○	○
다회(茶會)	○		○	○			○	○			○			○

『다원(茶苑)』의 차와 산업에 관한 하위영역의 기사로는 차생산업계 탐방을 통해 차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외국의 차산업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차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기도 하였다. 또한 전국의 다회(茶會)와 대학 내의 다회(茶會)의 소개를 통해 차 인구의 확대에 대해 관심을 쏟았다.

『설록차』의 차와 산업에 관한 하위영역의 기사 중 먼저 다기판매점에 관한 내용은 ‘다구전문점 탐방’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다구판매점을 소개하고 있다. 찻집에 관한 기사로는 ‘찻집순례’, ‘전통찻집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초기에는 전통찻집 위주의 기사가 소개되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현대적인 찻집에 대한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제다업에 관한 기사는 ‘설록차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주)태평양 ‘설록차’의 발자취 및 현재와 미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행사, 전시 및 축제에 관한 기사로는 ‘한·일 차문화제’, ‘중화민국 다예대전’등과 같은 국제행사뿐만 아니라 초의선사추모제, 한국차문화전, 다향제, 녹차요리 페스티벌 등과 같은 국내행사에까지 다루고 있다.

『차인(茶人)』의 차와 산업에 대한 주제유목의 하위영역 중 먼저, 찻집에 관한 내용은 ‘차향따라’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찻집을 소개하고 있다. 제다업에 관한 내용은 ‘한국차 탐방’이라는 제목으로 ‘설록차, 쌍계제다, 한국제다 등’의 업체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행사, 전시 및 축제에 관한 내용으로는 ‘차의 날 축제, 하동 야생차 축제, 세계 도자기 엑스포’와 같은 국내 차 행사에서부터 ‘국제 다예행사, 상해국제차문화제 참관기, 국제 녹차 심포지엄, 국제차학술회의, 말레이시아 세계차페스티벌’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다회(茶會)에 관한 내용으로는 전국의 산재해 있는 다회들의 소개와 더불어 자체 소식들을 싣고 있다.

『다담(茶談)』의 차와 산업에 관한 주제유목의 하위영역 중 먼저, 다기판매점에 관한 기사로는 ‘다기점산책’, ‘다도구 전문점’이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다기판매점에 대한 소개를 연재하고 있다. 찻집에 관한 기사는 ‘찻집순례’라는 제목으로 국내의 찻집뿐만 아니라 ‘해외찻집’이라는 제목으로 중국과 싱가포르의 찻집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새로이 개업한 찻집에 대해서도 ‘새찻집’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다. 제다업의 경우, ‘차생산공장 탐방’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의 제다공장들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차산업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차산업의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하였다. 행사, 전시 및 축제에 관한 기사로는 보성다향제와 같은 차 축제뿐만 아니라 그릇전, 대구전을 비롯하여 국제녹차세미나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에 관한 기사도 실었다. 다회(茶會)에 관한 기사는 전국의 다회에 대한 소식을 안내하고 있다.

『다심(茶心)』의 차와 산업의 주제유목에 해당하는 찻집에 관한 기사는 ‘다원순례’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다원을 답사하였으며, ‘한국전통다원 현황’이라는 기사를 완성케하였다. 제다업에 관한 내용으로는 ‘한국제다사’라는 제목으로 기획연재되었다. 행사, 전시 및 축제에 관한 내용으로는 한마음축제 등과 같은 지역의 다도축제에 관해 다루고 있다.

『화백다론(和白茶論)』의 차와 산업에 관한 하위영역은 화백다론이 진주 지역의 다인들에 의해 발행된 이유로 진주지역의 차문화축제에 국한되어 소개되었다. 다회에 관한 내용으로는 다회를 통한 수신(修身)에 관해 다루고 있다.

『차문화(茶文化)』의 차와 산업에 관한 하위영역으로는 먼저, 제다업에 관한 내용으로 한국의 차 산업체 방문을 통해 차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내다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행사, 전시 및 축제에 관한 내용으로는 한국차문화협회의 ‘차예절경연대회’를 통해 차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다회(茶會)에 관한 기사로는 『차문화』 역시 다회(茶會)에서 발행한 기관지(機關誌)인 까닭으로 차문화협회의 지회(支會)나 지부(支部)의 소식지 역할을 대변할 수 있는 내용을 매 호마다 게재하고 있다.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의 차와 산업에 관한 하위영역으로는 주로 ‘녹차의 가격’, ‘시판 녹차의 품질’, ‘한국차 식품사업의 전망’, ‘포장제 및 포장내 조건’ 등과 같은 차의 소비 및 판매와 관련된 제다업 관련 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동 차문화(鰍洞 茶文化)』의 차와 산업에 관한 하위영역의 기사는 ‘한국의 다원순례’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다원 방문을 통해 전국의 차 생산 실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제다(製茶)와 관련하여 하동의 덕음녹차 제조법에 대한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내고장 축제’라는 제목으로 하동 지역의 차 축제(하동 야생차문화축제, 한마음축제 등)를 소개하고 있다.

『다도(茶道)』의 차와 산업에 관한 하위영역에 관한 기사에서는 ‘업체탐방’ 및 ‘찾집탐방기’라는 제목으로 다기판매점과 찾집에 관한 소개를 연재하였다. 제다업에 관한 기사는 부진하였으나 ‘다계행사’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차 관련 행사에 관한 취재기사를 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차문화관련 행사에 대한 취재를 통해 국제적인 차문화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다회에 관한 내용으로는 ‘다회탐방’이라는 제목아래 다회에서의 행해지고 있는 차교육에 대해 실고 있다

『선문화(禪文化)』의 차와 산업에 관한 하위영역의 내용은 제다업에 관한 기사로 한국의 제다업체를 탐방하는 내용이 실렸다. 이밖에 국제차박람회의 국제차행사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차의 세계』의 차와 산업에 관한 하위영역의 기사는 주로 찾집탐방을 통해 전국의 찾집을 홍보하는 측면의 기사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으며 제다업체에 관한 탐방도 함께 이루어졌다.

『Tea & People』의 차와 산업의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구 전문점과 찾집을 매월 다루고 있으며 ‘다도구 지상판매’라는 제목으로 다도구의 판매에 대한 접근성을 수월하게 함으로서 차문화의 저변확대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제다산업업체들의 탐방을 통해 제다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이밖에, 생활속의 다양한 기능성 차 상품에 대한 연재를 통

해 산업화된 차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다회탐방을 통해 다회들의 소식과 다계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각 전문잡지별 차의 산업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기판매점에 관한 내용은 <표Ⅲ-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록차』, 『다담(茶談)』, 『다도(茶道)』, 『Tea & People』에 한하여 다루고 있으며 주로 전국의 다기판매점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둘째, 찻집에 관한 내용은 <표Ⅲ- 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설록차』, 『차인(茶人)』, 『다담(茶談)』, 『다심(茶心)』, 『다도(茶道)』, 『차의 세계』, 『Tea & People』의 전문잡지에서 전통찻집 위주의 기사부터 현대적인 찻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찻집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중국과 싱가포르의 해외 찻집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특히, 『다심(茶心)』의 경우는 전국의 찻집 답사를 통한 ‘한국전통다원 현황’이라는 통계기사를 신기도 했다.

셋째, 제다업에 관한 내용은 <표Ⅲ-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원(茶苑)』, 『설록차』, 『차인(茶人)』, 『다담(茶談)』, 『다심(茶心)』, 『차문화(茶文化)』,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 『하동 차문화』, 『선문화(禪文化)』, 『차의 세계』, 『Tea & People』 등 다수의 전문잡지에서 다루어졌다. 대부분 한국의 제다업체들에 대한 내용을 신고 있는데, 특히 『설록차』의 경우는 자사(自社)의 제다업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차의 소비 및 판매와 관련된 제다업 기사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넷째, 행사, 전시 및 축제에 관한 내용은 <표Ⅲ- 6>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모든 전문잡지류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국제 행사뿐만 아니라, 국내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차와 관련된 행사, 전시 및 축제에 대해 모

든 전문잡지류가 다루고 있다는 것은 차 전문잡지가 차 애호가들 사이에서 소식지 역할을 함과 동시에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사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다섯째, 다회(茶會)에 관한 내용은 <표Ⅲ-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원(茶苑)』, 『차인(茶人)』, 『다담(茶談)』, 『화백다론(和白茶論)』, 『차문화(茶文化)』, 『다도(茶道)』, 『Tea & People』에서 다루고 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다회들의 소개와 더불어 특히, 『차인(茶人)』와 『차문화(茶文化)』의 경우는 회지(會誌)의 특성이 강한 이유로, 각 협회의 지회(支會)나, 지부(支部)의 소식지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5) 차와 교육에 관한 주제

<표Ⅲ-2>에서 볼 때, 차와 교육에 관한 주제유목의 총 기사 51건 중에, 학교교육에 관한 기사가 40건(78.43%), 특수교육에 관한 기사가 11건(21.57%)으로 나타났다.

차와 교육 관련 주제유목에 따른 전문잡지들의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다.

<표Ⅲ- 7> 차와 교육 관련 주제유목의 하위영역별 게재상황

하위영역 \ 잡지명	다원	실록차	차인	다담	다로경권	다심	화백다론	차문화	차연구회보	하동차문화	다도	선문화	차의세계	차와사람
학교교육	○	○	○	○						○	○		○	○
특수교육		○		○									○	○

『다원(茶苑)』의 차와 교육에 관한 하위영역으로는 학교교육으로서의 차교육에 대한 내용이 다양하게 실렸다. 가령, 초등학교의 차교육을 탐방하기도 하고, 대학생들의 차문화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설록차』의 차와 교육에 관한 하위영역 중 먼저, 학교교육은 ‘초등학교 다도교육’ 및 ‘청소년에 대한 차생활 교육’에 대해, 특수교육은 외국인들을 위한 다도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차인(茶人)』의 차와 교육에 관한 하위영역으로는 ‘청소년의 차생활 교육, 21세기를 준비하는 인간육성, 중학생의 다도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청소년기의 차생활 교육에 대해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다담(茶談)』의 차와 교육에 관한 주제유목에 해당하는 학교교육의 경우, 각급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생활교육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대학생활과 차’라는 제목으로 교양과목으로서의 차교육의 실행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의 경우 ‘차교육은 어려서부터’라는 제목으로 조기 차교육의 중요성과 효용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특히 미취학 아동의 차교육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이밖에 ‘다촌치료’²⁰⁾라는 새로운 개념의 차생활치료를 통해 타 잡지에서는 다루고 있지 못한 차교육을 통한 차와 복지 영역에까지 관심을 두고 있다.

『다로경권(茶爐經卷)』, 『다심(茶心)』, 『화백다론(和白茶論)』, 『차문화(茶文化)』,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 그리고 『선문화(禪文化)』 등의 에서는 차와 교육에 관한 주제유목에 해당하는 기사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동 차문화(鰐洞 茶文化)』의 차와 교육에 관한 하위영역의 기사는 1건으로 당시의 다도 대학원의 설립에 관해 다루고 있다.

.20) 다촌치료는 다촌치료사라는 전문가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부적응의 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 대해 차문화를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인간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활동을 말한다.(『다담(茶談)』, 2003년 봄호, pp.98.)

『다도(茶道)』의 차와 교육에 관한 하위영역의 기사내용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다도교육에 관한 기사가 쓰여졌다.

『차의 세계』의 차와 교육에 관한 하위영역기사로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의 전문적인 학교교육에 관해 다루지고 있다.

『Tea & People』의 차와 교육에 관한 내용은 ‘우리도 좋아해요’라는 제목으로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차의 학교교육 실태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각 전문잡지별 차와 교육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교육에 관한 내용은 <표Ⅲ-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원(茶苑)』, 『설록차』, 『차인(茶人)』, 『다담(茶談)』, 『하동 차문화』, 『다도(茶道)』, 『차의 세계』, 『Tea & People』에서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은 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 과정에 이르는 차교육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에서의 전문화된 차 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은 <표Ⅲ- 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록차』, 『다담(茶談)』, 『차의 세계』, 『Tea & People』의 에서 소개하고 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교육, 미취학 아동의 차교육에 대한 기사와 더불어 조기 차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효용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밖에 다촌치료라는 새로운 교육치료법의 소개를 통해 노인, 정서행동장애인과 같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6) 차와 과학에 관한 주제

<표Ⅲ-2>를 살펴보면, 차와 과학에 관한 주제유목의 총 기사 377건 중에, 차의 효능에 관한 기사가 155건(41.11%)으로 가장 많았고, 차의 성분에 관한 기사가 80건(21.22%), 차의 활용에 관한 기사가 73건(19.36%) 그리고 차의 재배에 관한 기사가 69건(18.30%)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차와 과학 관련 주제유목에 따른 전문잡지들의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다.

<표Ⅲ- 8> 차와 과학 관련 주제유목의 하위영역별 게재상황

하위영역 \ 잡지명	다원	설록차	차인	다담	다로경권	다심	화백다론	차문화	차연구회보	하동차문화	다도	선문화	차의세계	차와사람
차의 재배	○	○	○	○		○		○	○					
차의 성분	○	○	○	○	○	○		○	○	○	○			
차의 효능	○	○	○	○	○	○	○	○	○	○	○		○	○
차의 활용	○	○	○	○					○		○			○

『다원(茶苑)』의 차와 과학에 관한 주제유목에 해당하는 하위영역으로는 ‘차나무의 이모저모’라는 제목으로 차나무의 식물학적인 내용을 다루었으며, 차의 효능을 통한 정신건강학적인 측면과 약리학적인 측면 위 두 가지의 관점에서 차를 살펴보았다. 차의 활용에 대한 기사는 차를 이용한 다양한 미용법을 소개함으로써 차의 효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설록차』의 차와 과학에 관한 주제유목의 하위영역 중에 먼저, 차의 재배의 경우 기본적인 차의 식물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차의 재배 시 알아두어야 할 관리법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있다. 또한 ‘관상용 차나무’ 재배 및 ‘정식과 유목원 관리’ 그리고 ‘성목관리’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다. 차의 성분에 관한 기사로는 ‘녹차의 성분과 기호성의 관계’, ‘차의 품질과 화학성분’, ‘녹차와 비타민’에 대해 다루고 있다. 차의 효능에 관한 기사로는 주로 차의 효능을 통한 건강유지에 관해 다루어졌다. ‘한의학 고문헌에 나타난 차의 효능’, ‘한방에서 본 차의 효능’이라는 제목으로 한의학과 차의 효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차 박물관’이라는 제목으로 ‘항암작용, 중금속 제거, 충치 예방, 콜레스테롤 감소, 식중독 예방, 알코올과 녹차, 고혈압, 당뇨병, 녹차의 해독작용, 변비치료, 천식해소, 강심, 이뇨작용 및 노화억제 등’ 다양한 차의 보건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활용법에 관한 기사로는 ‘차를 생활에 활용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먹는 차로서의 이용, 차음료로서의 이용, 생활용품으로서의 이용, 녹차 추출물로서의 이용 등이 나와있다. 구체적으로는 ‘차목욕, 녹차팩, 차꽃술, 찻물염색, 차목침, 집안냄새제거, 난을 살찌우는 찻잎 비료, 여드름 예방과 치료, 신생아 태열’ 등의 활용법을 소개하고 있다.

『차인(茶人)』의 차와 과학에 관한 하위영역 중 먼저, 차의 재배에 관한 내용은 ‘차나무, 차나무의 수명, 차나무 분재배, 차나무 가꾸기, 차나무의 재배 및 관리표, 차재배 기술’ 등의 제목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차나무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고 있다. 차의 성분에 관한 내용으로는 차향의 성분에 관해 다루고 있다. 차의 효능에 관한 기사 제목으로는 ‘한의학에서 바라본 차’, ‘차와 건강의 이해’, ‘차와 건강’, ‘녹차와 건강’, ‘여성건강과 차’가 있으며, 차를 통한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차와 기(氣)’의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차를 통한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차의 활용에 대

한 내용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차의 이용법뿐만 아니라 묵은 녹차를 가공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다.

『다담(茶談)』의 차와 과학의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기사는 먼저, 차의 재배의 경우, ‘우리나라의 차재배’에 관한 다루었으며, ‘차나무 재배와 보호관리방법, 차나무 생활원예, 차나무 육성, 차재배에 알맞은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차나무를 재배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들을 제공하고 있다. 차의 성분에 관한 내용으로는 차의 일반성분을 시작으로 차의 수분, 무기질, 비타민, 카페인, 탄닌, 아미노산, 차의 향기성분, 차의 색소, 차의 효소, 탄수화물, 유기산, 카테킨류, 콜레스테롤 등의 내용들이 연재되었다. 또한 차엽의 화학성분에 관한 실험 연구들이 다양하게 실렸다. 이밖에 각국의 녹차에 함유된 성분비교도 아울러 소개되었다. 차의 효능에 관한 기사는 차의 약리적인 효능과 치료효과에 대해서 주로 다루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녹차와 고혈압의 관계, 녹차의 소취효과, 혈압저하, 염증삭힘작용, 암예방, 차의 충치예방효과, 협심증과 심교통을 예방, 중금속 제거효과, 술과 녹차, 녹차의 다이어트 효과, 냉증제거, 성인병과 녹차, 지방간 예방, 차의 항산화작용, 혈소판응집억제작용’ 등의 세부 내용들이다. 차의 활용에 대한 기사로는 ‘차생활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차배개, 말차크림, 유자차팩 등의 차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다담뷰티라인’이라는 제목으로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미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다로경권(茶爐經卷)』의 차와 과학에 관한 주제유목의 하위영역 중 차의 성분에 관한 기사는 차의 성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차의 약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녹차의 영양학적 규명을 성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차의 효능에 관한 내용은 ‘음다의 보건기능’, ‘체질에 따른 녹차’, ‘녹차의 효능’ 등에 대해 다루었으며, 본초강목의 차(茶)에 관한 해설을 인용한 내용들

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다심(茶心)』의 차와 과학에 관한 하위영역의 내용으로는 먼저, 차의 재배에 대한 차나무의 식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차의 성분의 경우는 녹차의 특수성분들과 녹차의 화학성분들의 변화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차의 효능에 관한 내용으로는 녹차와 나의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차의 보건기능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화백다론(和白茶論)』의 차와 과학에 관한 하위영역의 기사는 차와 건강, 그리고 차의 효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차의 효용에 관한 내용은 ‘차의 섭취’를 ‘일의 성취’와 관련지어 효율과 요구율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차문화(茶文化)』의 차와 과학에 관한 하위영역의 내용은 차의 재배와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나무를 가정에서 직접 심고 키워 차를 우려마시고자 하는 차인들이 늘어나면서 ‘차밭관리’ 혹은 ‘차나무 키우기’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차의 성분과 효능에 관한 내용과 더불어 ‘차 치료상식’이라는 제목으로 차를 이용한 처방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차를 치료도구로 이용한 기사도 소개되었다.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의 차와 과학에 관한 하위영역의 기사는 먼저 차의 재배에 관한 내용들이 ‘제다법 개발, 차 유기재배 및 무농약 재배, 녹차 품종개발’ 등과 같은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또한 차의 성분과 차의 효능에 관한 내용들도 상당수 ‘반발효차의 향기성분, 녹차 카테킨의 효능’ 라는 제목으로 다루어졌으며 건강과 관련된 기사도 더불어 다루어졌다.

『하동 차문화(鰐洞 茶文化)』의 차와 과학에 관한 기사는 먼저, 우리 차의 종류를 모양과 제다법에 따라 구분하여 소개하였으며, 성별 및 연령대별 녹차의 효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녹차의 향기성분’이라는 제목으로 덩음차와 증제차의 향기 성분에 대한 분석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도(茶道)』의 차와 과학에 관한 하위영역으로는 주로 차의 성분과 차의 효능을 중심으로 차와 건강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소개되었다. 또한, 녹차를 피부미용, 찻물목욕 등과 같이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매체 다룸으로써 차의 활용성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선문화』의 경우는 차와 과학에 해당하는 기사가 소개되지 않았다.

『차의 세계』의 차와 과학에 관한 하위영역의 기사는 주로 차의 효능을 바탕으로 차를 이용한 건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특히, 옛 선비들의 건강장수 음료부터 다양한 종류의 대용차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다도와 명상을 통한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다뤄졌다.

『Tea & People』의 차와 과학에 관한 하위영역의 내용은 ‘차와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차의 음용을 통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까지도 관련지어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건강음료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각 전문잡지별 차와 과학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차의 재배에 관한 내용은 <표Ⅲ-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원(茶苑)』, 『설록차』, 『차인(茶人)』, 『다담(茶談)』, 『다심(茶心)』, 『차문화(茶文化)』,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에서 다루고 있다. 차의 재배 시(時)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차의 식물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차나무의 생활원예, 차나무의 관리방법, 차재배에 적합한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의 경우는 차의 유기재배 및 무농약 재배, 녹차의 품종개발 등 좀더 학술적인 성향이 강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둘째, 차의 성분에 관한 내용은 <표Ⅲ- 8>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원(茶苑)』, 『설록차』, 『차인(茶人)』, 『다담(茶談)』, 『다로경권(茶爐經卷)』 『다

심(茶心)』, 『차문화(茶文化)』,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 『하동 차문화』, 『다도(茶道)』에서 게재되었다. 차의 일반성분을 중심으로 차의 수분, 무기질, 비타민, 카페인, 탄닌, 아미노산, 차의 향기성분, 차의 색소, 차의 효소, 탄수화물, 유기산, 카테킨류, 콜레스테롤 등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각국의 녹차 성분 비교도 이루어졌다.

셋째, 차의 효능에 관한 내용은 <표Ⅲ-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문화(禪文化)』를 제외한 모든 전문잡지에서 다루어졌다. 주로 차의 효능을 통한 건강유지에 관한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또한 한의학의 관점에서 본 차의 효능에 대한 내용도 소개되었다. 이밖에 차의 약리작용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차를 관련지어 해석하기도 하였다.

넷째, 차의 활용에 관한 내용은 <표Ⅲ- 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원(茶苑)』, 『설록차』, 『차인(茶人)』, 『다담(茶談)』,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 『다도(茶道)』, 『Tea & People』에서 다루고 있다. 활용에 관한 내용으로는 음료로서의 응용, 생활용품으로서의 이용, 녹차추출물로서의 이용 등이 소개되었다. 특히 생활용품에 관한 차의 활용에 관한 내용으로는 차를 이용한 미용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차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경로의 하나인 차 전문잡지를 대상으로 차 관련 기사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이루어졌는지 유목별로 분류하여 이를 토대로 최근까지의 차와 관련한 주요 문제와 관심사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은 『다원(茶苑)』을 비롯하여 『설록차』, 『차인(茶人)』, 『다담(茶談)』, 『다로경권(茶爐經卷)』, 『다심(茶心)』, 『화백다론(和白茶論)』, 『차문화(茶文化)』,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 『하동 차문화』, 『다도(茶道)』, 『선문화』, 『차의 세계』, 『Tea & People』의 각 전문잡지별 창간호부터 2004년 3월까지 발행된 전문잡지에 게재된 기사 총 3349건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내용분석법을 적용하여, 차 관련 기사의 내용을 파악한후 범주화하고 각각의 범주 및 속성에 나타난 차 관련 기사의 빈도수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고찰은 다음과 같다.

1. 1980년대 창간된 차 전문잡지로는 『다원(茶苑)』, 『설록차』, 『차인(茶人)』, 『다담(茶談)』, 『다로경권(茶爐經卷)』, 『다심(茶心)』으로 총 6종에 이르고, 1990년대 발행된 차 전문잡지로는 『화백다론(和白茶論)』, 『차문화(茶文化)』, 『차연구회보(茶研究會報)』, 『하동 차문화』으로 총 4종에 이른다. 또한 2000년대 발간된 차 전문잡지로는 『다도(茶道)』, 『선문화』, 『차의 세계』, 『Tea & People』으로 총 4종에 이른다.

지금까지 발행된 차 전문잡지들은 일반 차인들을 위해 발간된 월간, 계간 형태와 기업이나 협회 등에서 발행되는 기관지(機關誌)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차 전문잡지는 기관지 형태의 잡지에

비해 시기도 짧으며 내용이나 구성면에서도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기관지의 형태로 만들어진 차 전문잡지들이 내용이나 구성에서 전문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차 전문잡지에 게재된 주제유목별로 총 기사 3349건 중에,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는 1505건(44.94%)으로 가장 많았으며, 차와 산업에 관한 주제유목의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는 494건(14.75%), 차와 예술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는 478건(14.27%), 행다례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는 444건(13.26%), 차와 과학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는 377건(11.26%)순이고, 차와 교육에 관한 주제유목의 기사는 51건(1.52%)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3. 차문화사에 관한 주제유목의 총 기사 1505건 중에, 다인(茶人)에 관한 기사가 331건(21.99%)으로 가장 많았고, 다서(茶書)에 관한 기사가 270건(17.94%), 다시(茶詩)에 관한 기사가 254건(16.88%), 외국차의 역사에 관한 기사가 239건(15.88%), 차유적지에 관한 기사가 211건(14.02%), 한국차의 역사에 관한 기사가 200건(13.29%)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먼저, 한국차문화의 역사에 관한 기사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차문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밖에, 근·현대의 차문화사에 관해서는 모든 잡지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둘째, 외국차문화의 역사에 관한 기사로는 먼저, 동양의 차문화사에 관한 내용으로 대부분 일본, 중국 위주로 다루고 있으며, 서양의 차문화사에 관한 내용은 유럽과 미국의 차문화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셋째, 다서(茶書)에 관한 기사는 동다송(東茶頌), 다신전(茶神傳), 다부(茶賦), 다경(茶經), 깍다양생기(喫茶養生記)를 비롯하여 근대에 발행된 다서(茶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넷째, 다시(茶詩)에 관한 기사는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다시(茶詩)와 중국의 다시가 소개되었다. 이밖에, 구전(口傳) 속의 차민요, 차시조 그리고 다도수필에 이르기까지 문

학 분야의 다양한 장르가 소개되었다. 다섯째, 다인(茶人)에 관한 기사는 신라 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다인(茶人)에 대해 폭넓게 소개되었다. 또한 조선 시대의 여류다인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여섯째, 차 유적지에 관한 기사는 국내의 차 유적지에 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국외 유적지로는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대만, 인도에 관해 소개되었다.

4. 행다례에 관한 주제유목의 총 기사 444건 중에, 다실(茶室)에 관한 기사가 131건(29.50%)으로 가장 많았고, 다구(茶具)에 관한 기사가 102건(22.97%), 다례법(茶禮法)에 관한 기사가 91건(20.50%), 물에 관한 기사가 66건(14.86%), 다복(茶服)에 관한 기사가 54건(12.1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먼저, 물에 관한 내용은 찻물의 중요성, 물 선택의 중요성, 찻물로 적합한 좋은 물이 있는 명소 소개, 물의 팔덕(八德)과 진수(眞水), 물을 끓이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 둘째, 다구(茶具)에 관한 내용은 우리나라 다구의 변천사, 좋은 다구 고르는 방법, 다기구입요령, 한국, 중국, 일본의 다기 비교, 다기의 생산 및 유통, 이도다완에 관한 내용, 찻상과 찻상보, 차수저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셋째, 다복(茶服)에 관한 내용은 매월 다양한 다례복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찻자리별 구별되는 복식에 대한 내용,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다례복을 고증하기도 하였다. 넷째, 다실(茶室)에 관한 내용은 주로 개인 소유의 다실을 소개하는 기사의 비중이 많았으며, 일본의 다실의 구조와 형태에 대한 내용이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다섯째, 다례법(茶禮法)에 관한 내용은 전국의 차인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다례법이 소개되기도 하였으며, 기관지(機關誌)인 경우, 각 기관을 대표하는 다례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5. 차와 예술에 관한 주제유목의 총 기사 478건 중에, 차요리에 관한 기사가 239건(50.00%)으로 가장 많았고, 다화(茶花)에 관한 기사가 110건(23.01%), 다화(茶畵)에 관한 기사가 67건(14.02%), 다악(茶樂)에 관한 기사가 42건

(8.79%) 그리고 수공예에 관한 기사가 20건(4.18%)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먼저, 다화(茶畵)에 관한 내용은 송하수업도(松下授業圖), 선동전차(仙童煎茶), 죽리탄금도(竹裏彈琴圖), 품차도(品茶道), 사명도(事茗圖), 송하수업(松下授業)와 같은 우리의 다화(茶畵)에서부터 중국의 다화(茶畵)에 이르기까지 소개하고 있다. 둘째, 다화(茶花)에 관한 내용은 매월 다양한 소재의 꽃으로 다화(茶花)를 소개하는 동시에 다화의 꽃꽂이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셋째, 다악(茶樂)에 관한 내용은 한국전통음악인 국악과 차를 접목시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밖에, ‘차와 함께하는 팝음악’과 같은 차와 외국음악과의 연결을 꾀하기도 하였다. 넷째, 수공예에 관한 내용은 차와 관련된 소품을 소개를 함과 동시에 차와 관련된 공예품들의 제작방법을 다루고 있다. 다섯째, 차요리에 관한 내용은 주로, 차를 이용한 음식뿐만 아니라 차와 함께 곁들임이 가능한 음식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중국의 차음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6. 차와 산업에 관한 주제유목의 총 기사 494건 중에, 찻집에 관한 기사가 151건(30.57%)으로 가장 많았고, 행사, 전시 및 축제에 관한 기사가 139건(28.14%), 제다업에 관한 기사가 90건(18.22%), 다기관매점에 관한 기사가 66건(13.36%) 그리고 다회(茶會)에 관한 기사가 48건(9.72%)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먼저, 다기관매점에 관한 내용은 주로 전국의 다기관매점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둘째, 찻집에 관한 내용은 전통찻집 위주의 기사부터 현대적인 찻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찻집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중국과 싱가포르의 해외찻집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셋째, 제다업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한국의 제다업체들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으며, 차의 소비 및 판매와 관련된 제다업 기사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넷째, 행사, 전시 및 축제에 관한 내용은 국제행사뿐만 아니라, 국내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다섯째, 다회

(茶會)에 관한 내용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다회들의 소개와 더불어 소식지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7. 차와 교육에 관한 주제유목의 총 기사 51건 중에, 학교교육에 관한 기사가 40건(78.43%), 특수교육에 관한 기사가 11건(21.57%)으로 나타났다.

먼저, 학교교육에 관한 내용은 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 과정에 이르는 차교육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에서의 전문화된 차 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교육, 미취학 아동의 차교육에 대한 기사와 더불어 조기 차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효용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밖에 다촌치료라는 새로운 교육치료법의 소개를 통해 노인, 정서행동장애인과 같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교육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8. 차와 과학에 관한 주제유목의 총 기사 377건 중에, 차의 효능에 관한 기사가 155건(41.11%)으로 가장 많았고, 차의 성분에 관한 기사가 80건(21.22%), 차의 활용에 관한 기사가 73건(19.36%) 그리고 차의 재배에 관한 기사가 69건(18.30%)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먼저, 차의 재배에 관한 내용은 차의 재배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차의 식물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차나무의 생활원예, 차나무의 관리방법, 차재배에 적합한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둘째, 차의 성분에 관한 내용은 차의 일반성분을 중심으로 차의 수분, 무기질, 비타민, 카페인, 탄닌, 아미노산, 차의 향기성분, 차의 색소, 차의 효소, 탄수화물, 유기산, 카테킨류, 콜레스테롤 등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각국의 녹차 성분 비교도 이루어졌다. 셋째, 차의 효능에 관한 내용은 주로 차의 효능을 통한 건강유지에 관한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또한 한의학의 관점에서 본 차의 효능에 대한 내용도 소개되었다. 이밖에 차를 차의 약리작용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관련지어 해석하

기도 하였다. 넷째, 차의 활용에 관한 내용은 음료로서의 응용, 생활용품으로서의 이용, 녹차추출물로서의 이용 등이 소개되었다. 특히 생활용품에 관한 차의 활용에 관한 내용으로는 차를 이용한 미용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80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14종의 차 전문잡지를 통해 독자들에게 제공되는 차 관련 정보의 경향을 파악한 결과, 선차(禪茶)를 중심의 『선문화』와 『차의 세계』 그리고 차의 이화학(理化學)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차연구회보』 등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잡지별 특성을 규명하기 어렵다. 또한, 한 전문잡지의 내용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거나 혹은 변경된 제목으로 내용의 큰 변화없이 다른 잡지에서 재인용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차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차에 관한 정확한 고증과 각종 저서의 발굴에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의 차와의 접목을 통해 이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차 전문잡지의 내실화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한 실태나 설문조사의 보고, 비교나 평가없이 제공되는 각종 정보, 메시지원의 근거가 부정확한 기사는 지양되어야 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한 차문화를 영위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기사의 보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가 한정된 학술집단의 자기만족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차 전문잡지의 정체성 확립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차 전문잡지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차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의 한계점은 각 전문잡지에 게재된 기사를 총망라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차문화 전반에 나타난 경향으로 일반화 시킬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학회지, 연구지 뿐만 아니라 인접학문의 학회지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차 전문잡지의 기사가 독자들에게 얼마나 잘 읽혀지며, 독자에게 미치는 기사의 효과나 영향은 분석하지 못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조사까지를 병행하여 이를 같이 분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승희. 「한국차생활총서」. 서울:(주)서울출판. 1994.
- 김대성. 「차문화 답사기 상, 중, 하」. 서울:불교춘추사. 1994.
- 김명배. 「다도학논고」. 서울:대광문화사. 1996.
- _____. 「다도학」. 서울:학문사. 1998.
- 김상현. 「한국의 茶詩」. 서울:민족사. 1997.
- 김운학. 「한국의 차문화」. 서울:현암사. 1981.
- 김종태. 「차 이야기」. 서울:오름시스템. 1995.
- _____. 「차의 과학과 문화」. 서울:보림사. 1996.
- 김종태 외. 「차의 과학」. 서울:대광서림. 1997.
- 대니얼 라이프 외. 배현석 옮김. 「미디어 내용분석 방법론」. 서울: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박기현. 「한국의 잡지출판」. 서울:늘푸른소나무. 2003.
- 안춘근. 「잡지출판론」. 서울:범우사. 1988.
- _____. 「한국 서지학원론」. 서울:범우사. 1990.
- 이광주. 「동과 서의 차이 이야기」. 서울:한길사. 2002.
- 이귀례. 「한국의 차문화:우리차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규방다례」. 서울:열화당. 2002.
- 이기성 외. 「출판개론」. 서울:서울출판미디어. 2003.
- 이의용. 「사보의 기획과 편집」. 서울:에디터스클럽. 1988.
- 야나기 무네요시. 김순희 역. 「다도와 일본의 미」. 서울:소화. 1998.
- 최범술. 「한국의 다도」. 서울:보련각. 1975.
- 최성희. 「우리차 세계의차 바로알고 마시기」. 서울:중앙생활사. 2002.
- (사)한국다도협회. 「한국 다도협회 20년사」. 부산:한국다도협회. 2002.

-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의 월간잡지」. 서울:한국언론연구원. 1993.
- _____. 「한국의 주간잡지」. 서울:한국언론연구원. 1995.
- _____. 「한국의 전문신문」. 서울:한국언론연구원. 1991.
- _____. 「한국의 생활정보지」. 서울:한국언론연구원. 1994.
- 홍종선. 「조사방법과 통계자료분석」. 서울:박영사. 1996.

학위논문

- 김영경. “한국 다문화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2001.
- 김혜숙. “차 관련 웹사이트의 콘텐츠 구성 현황 고찰”.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2002.
- 서종대. “한국전통문화정책의 형성과 특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1994.
- 유복열. “한국의 차문화와 다례에 관한 복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의상학과. 2002.
- 이금초롱. “녹차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2003.
- 이성은. “주요 일간지의 건강관련 기사 내용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4.
- 이주향. “조선시대 차문화와 다복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2002.
- 이창숙. “차의 생리활성에 관한 종합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2004.

- 장윤희. “1980년대 이후 녹차산업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2004.
- 장정현. “조선시대 다악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2003.

정기간행물

Goldsmith, E. B.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HERJ)”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3). 1983.

- 박몽구. “2천년대 한국사회 변동에 따른 잡지 변화 연구” 한국출판학회. 출판학연구. 44권. 2002. pp.239-240.
- 이용준. “디지털 시대 잡지산업의 발전방향”. 출판문화학회보. 출판잡지연구. 8(1). 2000. pp.94-95.
- 최배영. “조선일보의 글로벌 에티켓에 관한 기사 내용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2002. pp.180-181.
- _____, 최진영. “차생활 관련 사이트에 대한 내용분석”. 한국전통생활문화학회지, 4(1). 2001. pp.55-61.
- 전영택. “잡지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 출판잡지연구회. 출판문화학회지. 4(1). 1996. pp.110-111.
- 황덕구. “동아·조선일보의 가정생활관련 지면에 실린 기사 내용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994. pp.198-199.

ABSTRACT

An Analysis on the Contents of Tea-related News in Tea-journal until March, 2004, in Korea.

Kim, Ji Eun

Major in Propriety and Tea-ceremony

Dept. of Culture Industry

Graduate School of Culture Industry

Sungshin Women's University

Korea's tea-culture has been vitalized thanks to the government's efforts to commercialize the nation's traditional inheritances. This process also include governmental policy, corporate participation, consumers' change of attitude, eating habit, etc. Drinking green tea had been considered as a prestigious habit of the upper class before 1970s. Today, however, it became part of average citizen's everyday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ntents related to Tea in the Tea-journal that was printed from in the post- 1980's to

March, 2004.

The method used for this study is the content analysis and the data are articles of The Tea-journals.

The Tea-journal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periods as a matter of convenience. The first phase is from 1980 to 1989. The Tea-journals of 『Dawon(茶苑)』, 『Sulloccha(雪綠茶)』, 『Chain(茶人)』, 『Dadam(茶談)』, 『Darokyounkwon(茶爐經卷)』, 『Dasim(茶心)』 are published in 1980's. The second period is from 1990 to 1999, The Tea-journals of 『Hwabeakdaron(和白茶論)』, 『Tea Culture(茶文化)』, 『Newsletter of the Tea Research Society(茶研究會報)』, 『Hadong Tea Culture(鰍洞 茶文化)』 are produced in 1990's. The third phase is from 2000 to March, 2004. The Tea-journals of 『Dado(茶道)』, 『Sun Culture(禪文化)』, 『Tea world(차의 세계)』, 『Tea & People(차와 사람)』 are printed on 2000'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ings;

1. The total number tea-related news from fourteen tea-journal for the period of study was 3349.
2. On analyzing the contents, the tea-related news were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 'The history of tea-culture' , 'tea ceremony' , ' tea and art' , ' tea and industry' , 'tea and education' and 'tea and science' .
3. The history of tea-culture' comprehended 44.94 properties, 'tea ceremony' comprised 13.26 properties, ' tea and art' embraced into

14.27 properties, 'tea and industry' held 14.75 properties, 'tea and education' implicated 1.52 properties and 'tea and science' implied 11.26 properties.

4. Through the result of research, we could understand the trend on the contents of tea-related articles and contribute to offer basic knowledge for effective tea information. Then Tea-journal can take a role as a major resource for maintaining and promoting Korea's Tea culture. More active and continual monitoring and analyzing the contents related tea in the mass media including journal in detail, and participating in establishing the system of adequate and precise information for devotee of tea.

A recovered tradition without full knowledge will eventually become stuffed tradition or vehicle for making profit. therefore Tea-culture should contribute in developing and securing human resources to conduct throughout research on this field. that is because we will never be able to create " the most Korean and the most modern culture" without having exact knowledge and full information about tradition in the ever more globalizing world.

부 록 1.

「주간다보 창간에 즈음하여」²¹⁾

식품사업부 이사 서향원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라는 기업 이념을 추구해온 태평양 화학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도문화 중흥에 앞장서기 이르렀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이 향상되면서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몸과 마음의 피로를 씻고 건전한 정신, 건강한 가정, 부강한 국가를 이룩하는데 차문화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예로부터 우리조상들은 정신을 맑게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인품을 기르기 위하여 차를 마셨으며 이를 통하여 슬기로운 지혜, 온건한 마음씨, 굳건한 정신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변화와 더불어 외세와 외래 문물이 급속히 도래되었고 커피라는 서양차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고유한 다도가 점차 사라지게 된 것은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 다도문화의 재현이라는 꿈을 가지고 출발하는 설록차를 위하여 차에 새로운 지식을 전해주고 앞으로의 길을 인도해 줄 뜻을 모아 「주간다보」를 엮어보려 합니다. 새로운 개척에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고난과 고통 뒤에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위에서 전통 다도문화를 중흥시키려는 민족의 염성이 서서히 높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록차를 널리 보급하여 국민의 음차 생활을 생활화하여 차를 차츰차츰 우리 고유의 전통 다도 문화를 중흥 재건시키기 위해 이 주간다보를 펴내는 것입니다.

21) 서향원, ‘주간다보창간에 즈음하여’, 『주간 다보』, 1981년 6월 15일 창간호. pp.1.

부 록 2.

「멋과 맛과 슬기를 차는 意志」²²⁾

茶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하여

요즘 우리 주변 여기저기에서 우리나라 전통의 차를 권장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비 茶를 익혀온 분들이 이웃과 친지와 다정한 벗에게 차를 권장하는 아름다운 풍습은 줄잡아 천 이백 여 년 전부터 연연히 이어 내려온 터이어서 새삼스러울 것은 조금도 없지만, 차를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을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한 건데 그럴까?」 하고 의아하게 여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 중략 -

茶를 권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근원적인 문제에 봉착합니다.

첫째는 찻값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소비원가로 따지만 커피값과 비슷하지만, 인접국에 비하면 약 2배의 가격이니깐요. 그러나 그 원인이 현존하는 약 7백헥트알의 기존 차밭이 제 구실을 못하는 즉 82년도에 차생업이 남아돌았다는 사실과 몇몇 제다공장에 재고품이산적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결국은 찻값을 낮추려면 차 소비량을 촉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망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만 -.

둘째는 다기(茶器)값이 역시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비싼 다기도구를 갖추어야 격식있는 차(茶)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산입니다. 정말 격조높은 차(茶)란, 거리에서 몇 백원 정도면 구할 수 있는 하찮은 찻잔에 더욱 사랑을 기울이는 오히려 완벽한 것보다는 조금은 힘이 있거나 찌그러진 듯한 편이 좋은 것이라는 옛

22) 월간 『다원(茶苑)』 창간호. pp.28-29.

차인(茶人)들의 충고에 따라야 합니다.

셋째는 너무 까다롭다는 것으로, 이 바쁜 세상에 그런 한가한 짓을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시간이 남아도는 부유층이나 할 노릇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 또한 오산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져서 녹차를 내거나 커피를 타는 거나 별 차이 없거니와, 원래 차(茶)란 그 행위 자체가 지난 시간, 또는 흘러간 일들을 반성하고 다가올 일들을 생각하는 거라면 오히려 느긋하게 시간을 잡아서 인생을 뜻있게 살아가는 촉매작용으로 활용할 일입니다. 그리고 차(茶)란 본시 인생을 착하고 정직하고 멋있게 살기 위하여 그 슬기를 터득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탐욕적인 부유층보다는 선비와 학생과 서민의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따지고 드는 것은, 차는 현대인의 감각에 맞지 않으며, 세계적인 기호추세에 어긋나는 국제고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녹차의 전세계 소비량이 152만톤인 데 비해서 커피는 405만톤인 것으로 보거나 우리나라의 연간 커피 소모량이 약 4백 억 원인 것을 보면, 소위 현대인의 감각 내지는 취향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조 5천억원의 우리나라 연간 술 소비량이 아무런 자랑이 될 수 없듯, 커피 수입량의 증가추세 또한 어떤 측면으로 보나 자랑일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으뜸가는 우리의 명순은 놌두고(初意의 東茶頌 참조), 외국의 것에 심취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두드러지게 발현하는 것이 세계성을 지니게 하는 것」이라는 원리에 위배됩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선진국의 대열로 도약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매우 적은 일인상 싶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매일 너댓잔씩 마시는 차부터 우리의 것을 다시 꽃피우는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차를 시작합시다.

김봉호(본지 발행겸 편집인)

부 록 3.

「전통다도문화 재현의 첫걸음」 23)

- 우리 것을 되찾는데 앞장서는 실천도장 되길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훌륭한 전통문화를 창조해낸 슬기로움과 온갖 시련 속에서도 우리 문화를 지키겠다는 끈기로 역사의 맥을 이어온 민족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현재에만 급급한 외래사조의 범람은 정신문화의 빈손을 실감해야하는 사회로 줄달음치게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 태평양화확은 몇 년전부터 전통차를 개발, 보급하는데 앞장서온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 부응이기도 하며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작은 정성이 담겨져 있는 사업이라 믿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전통차보급에 이어 우리 옛선조들의 숨결이 어린 차문화의 유물을 한 자리에 모아 「태평양다예관」을 개설, 전통차의 교육장으로 널리 공개중에 있으며 「다예총서」 I, II 권을 출간하여 각계의 전통차 애호가 여러분께 보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저희는 전통차문화의 재인식을 새로이 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통다도문화의 구현을 위한 월간지 『태평양설록차』를 창간하여 「차문화 유산의 중요성」, 「차와 국민건강」, 「차와 정신문화」를 여기에 담아 전국 방방곡곡에 보급, 계도하려는 기쁨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곧 저희 그룹 이념인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라는 명제를 보다 성실하게 보다 폭넓게 실천해 나가려는 결의요, 힘찬 발걸음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차를 통한 전통문화의 부흥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시책과 각계각층의 열렬한 호응에 힘입어 더욱 보람있고 알찬 전통차보급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전국 각처에서 남모르게 저희와 뜻을 같이 해 주시고 우리의 것을 되찾는데 앞장서 주시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저희가 내딛는 첫걸음에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太平洋그룹 會長 徐成煥

23) 『설록차』, 1983년 2월 창간호

부 록 4.

「茶文化의 위상을 높이는 茶人の 대변지」²⁴⁾

박 권 흠
(사)한국차인연합회장

한국차인연합회가 발족한 지 올해로서 18년째가 됩니다.
그동안 ‘茶人’誌 혹은 ‘茶人會報’ 등을 발간해서 회원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제공해 왔으며
그것을 통해서 회원 상호 이해를 넓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신문 형태의 ‘茶人會報’를 잡지 형태의 ‘茶人’으로
환원해서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어
이를 수용기로 하였습니다. ‘茶人’誌는 88년까지 발간되었는데
97년부터 이를 복간해서 발간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茶文化도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5월에는 國際茶文化 서울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림으로써
우리 茶文化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고
금년 5월에는 우리나라 茶文化의 中興祖이신 草衣 張意恂 禪師가 茶文化를 중
흥시킨 文化人物로서 정부로부터 지정됨으로써
茶文化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茶人’誌를 내는 뜻이 높고도 깊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꾸며 보겠습니다.
모든 茶人과 우리 茶文化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로부터 사랑받는
‘茶人’誌가 되도록 다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24) 『차인(茶人)』 지, 1997년 3월 복간호.

부 록 5.

『다로경권(茶爐經卷)』 합본을 발간하면서²⁵⁾

이 땅에 불교와 다(茶)가 전래된 이래 차(茶)와 불교는 뗄 수 없는 관계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선다일미(禪茶一味)로 표현되듯이 차(茶)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유익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 한잔에 응축된 정신과 정서의 교감과 사색의 여유는 실로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점점 사라져 가고 알 수 없는 외래의 열치기 주변문화가 우리 것을 대신하려는 이즈음에 눌러졌던 용수철이 튀어 오르듯 우리의 전통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로경권(茶爐經卷)은 이 땅의 정신문화를 주도해 온 선지식(善知識) 지성인(知性人) 선비들이 계승해 온 전통 차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차 한잔에 어려있는 우리의 정신과 얼을 되살리고 사색의 길을 열고 인격을 도야하여 우리 모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물이 흐리면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곳으로 고기는 모인다고 합니다. 다로경권(茶爐經卷)은 무더운 여름날 목이 탈 때 마시는 석간수(石間水)처럼 담담하면서도 시원한 한잔의 물이 되고자 합니다.

지나간 조각과 편린의 모음인 다로경권 합본 발행에 힘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기 2535년(1991년) 8월 하안거

海印寺 茶經苑 合掌

25) 『다로경권(茶爐經卷)』 합본 제 1권.

부 록 6.

향기로운 삶을 위한 차문화이 반석이 되길 기원하며²⁶⁾

발행인 강기주(시인)

차형

지리산골 깊숙한 화개동에서 옛 선인들의 벗이었던 차(茶)
그 맑고 푸르름에 대한 존경심과 신비로움에 찬탄을 금할 수 없네.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니 우리 차 한잔 머금어 보세.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들의 맘으로 말일세.
그리고 우리들의 나날을 뒤돌아 보세.
때로는 아쉬움과 고통 속에서도, 아니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가슴아파하며,
따뜻함과 순수함으로 안아 주었던 차형
모름지기 음료 문화는 인간사회에서 비롯된 것.
차라고 특정인들만 먹는다면 차가 아닐 것이네.
그저 우리네 삶, 생활의 일부라네.
하동땅은 차의 성지, 차의 고향.
화개동에서 차의 발전과 문화, 산업에 조그만 보탬이 되고져 노력하며,
모든 이에게 열성적으로 알리고 싶네.
차는 차로서 만족하여야 본연의 인간성 회복에 앞장 서기를 바라면서.
인쇄물의 공해시대라고 하는 요즘 행여 이책이 단순히 공해로 인식되는
종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삶을 느끼고 삶을 향기있게 하는
차문화의 반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일세.
차형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가 머무는 계곡
화개동에서 차 한잔 올리고 싶소.

26) 하동차문화회, 『하동 차문화』, 1999.가을 창간호.

부 록 7.

月刊 『다도(茶道)』 창간에 부쳐²⁷⁾

순하다 순한 연두 빛 찻잎이 마치 꽃잎처럼 예쁘게 손을 내미는 계절, 겨우내 차가운 대기 속에서 오늘을 준비하던 마음을 누군가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사람을 주고 싶은 茶의 성정 때문인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 중략 -

月刊 茶道가 생각하는 차문화 또한 그렇습니다.

차나무를 정성스레 가꾸어 수확을 하듯이 숨어 있는 문화를 발굴하여 전승·보급하는 정신문화 開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바다가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바닷물처럼 짜게 소화해 내듯이 차문화계의 모든 일을 수용하여 茶人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소화해 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月刊 茶道가 나아갈 길은 차의性情처럼 중용의 자세로 어느 특정 단체나 제조 회사를 대변하거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진정 茶人들의 편에 서서 茶人을 위한 잡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茶文化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한 서적을 발간하고, 전국의 茶人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사를 같이 만들고 함께 읽는 月刊 茶道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문화의 세기입니다. 문화의 전문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茶文化은 전반적으로는 정리가 미숙한 상태입니다. 이를 차곡차곡 기록하여 후손에게 자랑스런 선배 茶人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랑을 알면 관계를 초월하듯이 독자와 잡지사의 관계를 떠나 月刊 茶道의 茶界의 필수품이 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찻물 속에 녹아 있는 영양분을 얻듯이 글과 사진과 행간과 여백 속에서 茶道의 참 맛을 느끼십시오. 설령 조금은 설지 모르지만 저희 茶道 직원 일동은 茶의 향까지 보여드리려 노력할 것입니다.

本誌 編輯·發行人 康 法 善

27) 茶道社, 월간 『다도(茶道)』, 2000. 5 창간호.

부 록 8.

「정신문화 혁명 선문화가 앞장선다」 28)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해에 월간 『선문화(禪文化)』의 창간과 더불어 독자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선은 동아시아 문화의 주류로서 1천5백년간 극동 삼국을 무대로 꽃피워 왔으며, 인생·종교·철학과 어우러져 인류 역사상 가장 빼어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에 창간하게 된 『선문화(禪文化)』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잡지는 아닙니다. 한암(漢岩), 석전(石顛), 용성(龍城), 만해(萬海) 스님 등이 주도하여 1931년(소화 6년) 『선원(禪苑)』이 발간된 이후 80대후반에는 서경보, 이재복 등을 거치면서 『선사상(禪思想)』과 재가 거사 이회익 등에 의한 『선문화(禪文化)』 등이 창간과 폐간을 거듭해 왔습니다. 현재 이렇다 할 선불교 잡지 하나 없는 현실에서 이번 『선문화(禪文化)』 창간은 선을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올바른 선안내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선문화(禪文化)』는 선을 통해 인류문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가 주된 화두입니다. 본지는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독자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문화(禪文化)』를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 중 략 -

월간 『선문화(禪文化)』는 과거의 고적들만 들추는 데 머무르지 않고, 중국 선과 한국 선 수행의 살아있는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심층 취재하는 데 역점을 둬으로써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선적 지식과 교양을 고루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집중기획으로 매 호마다 특집을 소개하고 생활선과 차, 그리고 선문화의 각 장르별로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선문화 속에서 인류의 밝은 사

28) 『선문화(禪文化)』 2000년 8월 창간호, pp.11.

회를 지향해 나가는 데 선문화가 그 주도적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새천년을 맞는 새로운 전환점에서 의욕을 갖고 출발하는 새 월간지 『선문화 (禪文化)』에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00년 7월 20일

월간 선문화 발행인 최 석 환 합장

부 록 9.

「우리 차문화 정신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²⁹⁾

차의 세상을 열어갈 새 월간지 『차의 세계』가 2002년 새해 벽두에 독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차문화는 중국을 거점으로 한국, 일본으로 전파되면서 동아시아의 정신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으며 차를 즐기는 인구 또한 세계 150여개국에 20억 이상이 차지할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차의 전래는 신라 흥덕왕3년 김대립이 지리산 자락에 차씨를 심은 이래로 면면히 이어져 왔으며 특히 선불교와 절묘하게 만나면서 더욱 발전되었습니다.

선종의 차문화는 중국 당나라 때의 대선장인 조주종심(趙州從諗 778-897)선사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조주는 만나는 사람마다 “차나 마시고 가게(깍다거(喫茶去))”라고 하였고 조주의 차는 세상에 널리 퍼져 선과 차로 접목되면서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남북조 시기에는 투차(鬪茶)라는 차의 맛을 겨루는 차모임이 서민 사이에 유행하면서 퍼져 나갔고 특히 도자문화와 만나면서 차문화는 급속도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우리 차문화는 70년부터 일기 시작하여 100만 명에 육박하는 차동호인이 생겨날 정도로 기층문화로 성장 발전하였고 이는 정신문화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의 세계는 독자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차가 정신문화로 거듭 태동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지난 해 10월 19일 깍다거 공안의 현장 백림사에 조주선사 선다기념비가 건립되고 한·중 차맥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비명에 “한·중의 불교는

29) 『차의 세계』, 창간호, pp.17.

한뿌리이니 예부터 한 집안이며 법맥 또한 전함이로구나”라고 밝힌 바와 같이 『차의 세계』를 통해 한중 차문화의 교류를 활발히 이어나갈 것이며 선차의 맑고 투명한 정신을 가득 담아 선다일미(禪茶一味),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한국 차의 정신을 동아시아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차의 세계』는 80년초기 창간된 『다원(茶苑)』, 『다담(茶談)』의 정신을 계승하고 모든 차인들의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우리 차문화 발전에 크게 앞장설 것을 기약하면서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차의 세계』 발행인 최석환

부 록 10.

「더 많은 사람들의 차문화를 위하여³⁰⁾」

차(茶)!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입안에 향(香)이 가득해집니다. 우리의 차문화 속에는 이렇게 향기 가득한 내음이 물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음료, 이렇게 좋은 문화가 바로 우리의 곁에 있다는 것은 진정 커다란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차(茶)는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모든 음식 중에서 가장 높은 격(格)을 부여받고 잇는 차가 그만큼 널리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소수의 취미인 들만이 누리는 문화로 굳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차문화를 위하여 월간 「Tea & People」은 만들어 졌습니다. 아직은 높기만 한 차문화를 좀더 사람들 곁으로 가까이 두고픈 것이 저희 「Tea & People」의 마음입니다. 누구나가 좀더 쉽게 차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희 「Tea & People」이 맡았으면 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맑은 차, 맑은 마음, 맑은 사람’이 「Tea & People」의 슬로건이요, ‘함께하는 차 문화’가 「Tea & People」의 모토입니다.

「Tea & People」, 차와 사람이라는 제호답게 사람의 냄새가 물씬 풍겨지는 그런 잡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차문화와 어울리는 여러 문화가 녹아들게 하는 차문화지(茶文化誌)가 되고저 노력할 것입니다.

향(香)과 맛(味), 그리고 색(色)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한 잔의 차는 온전한 차가 되듯이 저희 「Tea & People」은 읽는 잡지, 보는 잡지, 참여하는 잡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저희 「Tea & People」이 여러분의 입김으로 멋진草木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월간 「Tea & People」 발행인 신희호

30) 『차와 사람 (TEA & PEOPLE)』, 창간호.